

## 민담 <외쪽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김 지 연\*

### 국문초록

한국 민담 <외쪽이>를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외쪽이> 민담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인도와 아프리카에 유화가 있다. 대상 민담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수태 음식 두 개 반을 먹고 온전한 아들 두 명과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인 반쪽 아들을 낳았다. 형들은 과거 보러 갈 때 외쪽이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해서 바위와 나무에 묶어 놓지만, 외쪽이는 힘이 세서 쑥 뽑아서 집의 뜰에 가져다 놓았다. 형들은 외쪽이를 칩으로 묶어서 호랑이 앞에 던져 놓지만 외쪽이는 호랑이와 칩 끊기 내기에서 이겨 호랑이가 죽을 벗겨 돌아온다. 호랑이 가죽을 탐낸 숙소 주인과 장기 내기에서 이겨 주인의 딸을 데려오기로 하고 노끈과 북, 벼룩, 빈대를 가지고 가서 주인집 사람들을 굶려주고 처녀를 데려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부처에게 비는 제시부는 창조성이 고갈된 의식의 한계 상황에서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에 겸허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의 자발적 활동을 기다리는 태도이다. 하얀 영감이 와서 고기 세 마리를 주는데 고양이가 와서 반 마리를 먹어서 부인은 고기를 두 마리와 반 마리만 먹고 온전한 아들 둘과 막내 아들 외쪽이를 낳는다. 노현자 상으로 나타난 정신(Geist)과 고양이로 나타난 동물적 본성이 작용하여 무의식에서 낯설고 새로운 형상을 지닌 정신적 내용이 생성되었다. 반쪽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상으로 많은 문화에서 신과 정령이 반쪽만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창조 신화에서 반쪽 존재는 생식 능력이 없지만, 죽지 않고 불멸한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의 설화에서는 반쪽으로 태어난 소년이 하늘나라에 가서 자신의 반쪽

접수일 : 2017년 10월 23일 / 심사완료 : 2017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2일

\* 좋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상임연구원

을 만나 합쳐져서 온전한 몸이 된다. 반쪽 정령이 인간에게 해로운 경우도 있지만, 반쪽만 있는 새, 닭, 정령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도 있다. 반쪽 존재는 하늘에서 곡식을 훔쳐 오거나 대나무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 오는 문화 영웅이다. 반쪽 존재가 나중에 온전한 몸이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대상 민담과 대부분의 유화에서는 이야기의 결말까지 반쪽 형상이 그대로 유지된다.

외쪽이는 무의식에서 태어난 정신적 체험의 상징이다. 형들이 외쪽이를 싫어하는 것에서 보이듯이 무의식의 내용은 처음에는 이상하고 기괴하게 보일 수 있으며 집단적 의식은 무의식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새로운 정신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의식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외쪽이는 호랑이를 퇴치하고 호랑이 가족을 벗겨 오는데 호랑이는 집어 삼키려는 무의식이며 집단적 무의식의 부정적 모성 원형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괴물이다. 숙소 주인의 딸을 데려올 때 외쪽이는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끈과 음악과 무속에 쓰이는 악기, 하찮아 보이는 벌레를 들고 가서 점잖은 척 하는 사람들을 놀려주는 동시에 활기와 창조성을 가져다준다. 외쪽이는 트릭스터로서 유교적 신분 사회였던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보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외쪽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상 혹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며 그전에 없던 것을 가져다 주는 문화 영웅이기도 한 정신적 내용으로 집단적 무의식에 존재하며 점차 드러날 심성이다.

**중심 단어 :** 반쪽이 · 외쪽이 · 분석심리학 · 민담 · 그림자.

## 들어가는 말

대상 민담 <외쪽이>는 임석재 전집 제1권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1932년 평안북도 용천군 최씨, 1936년 평안북도 벽동군 김씨, 1936년 평안북도 선천군 이씨에게 채록한 것이다.<sup>1)</sup> 민담의 반편(半便)은 귀도 하나, 눈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모두 반(半)만 있는 사람이지만, 팔다리가 둘씩 있는 정상적인 인간보다 힘도 세고 재치가 있어서 호랑이를 물리쳐 호랑이 가족을 벗겨 오고

1) 임석재(1987) : 《임석재전집1》, 평민사, 서울, pp114-115.

부잣집 신부와 결혼도 한다. 반쪽이라고 하면 나머지 반쪽을 찾아 합쳐져야 할 것 같은데, 반쪽만 있는 몸 그대로 처녀를 데려와 잘 살았다고 하고, 대상 민담과 대부분의 유화에서 양쪽이 다 있는 온전한 인간으로 변신하지 않는다.

반쪽이가 그렇게 힘이 세고 재치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유화를 찾고 민담에 나온 화소들을 하나하나 확충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반응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연결되면서 점차 민담에서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좀 더 풍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면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꿈입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라고 말하지만 꿈을 적고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지 못했던 꿈의 의미와 목적, 자기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과 같았다.

민담을 공부하는 것은 내담자의 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폰 프란츠는 민담이 정신의 간결하고 기본적인 구조를 반영하며, 인간의 일반적이고 근원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담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sup>2)</sup> 융은 민담에서 정신의 모티프에 관한 변이를 관찰할 수 있으며, 꿈과 같이 신화와 민담에서도 심혼(Seele)이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sup>

저자는 대상 민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심성의 근원적인 측면, 즉 원형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고찰하고 분석심리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 대상 민담 “외쪽이”

넷날에 어드런 낸이 아를 낳디 못해서 아 낳게 해달라구 부테(부처)한테 늘 빌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썩한 녕감이 와서 고기 세 마리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 아덜 셋을 낳는다구 했다. 낸은 너머너머 기빠서 그 고기를 받아서 학갑에 넣두구 먹으라구 했다. 그랬더니 광이레 와서 그 고기 세 마리 등 한 마리를 절반 채 먹었다. 낸은 그 고기 온근(완전한) 거 두 마리와 반 마리를 먹었더니 아를 개저서 삼형제를 낳는데 아덜 둘은 온근 아인데 하나는 반편을 낳다.

2) Von Franz ML(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p26.

3)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pp287-288.

아들 삼형제는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해서 과개보레 가게 됐다. 두 형은 반편을 데리구 가기가 싫어서 따라오디 못하게 하는데두 반편은 따라가갔다구 뒤를 쫓아갔다. 형들은 반편을 큰 파우에다 쫑제(묶어) 놓구 갔다. 반편은 힘이 여간만 세덜 안아서 깡 하구 힘을 쥐서 뽑아서 짙어지구 집이루 와서 뜰악에다 내려놔다. 오마니가 보구 “그건 무엇 할라구 개오네?” 하느끼니 “내 잔체할 때 떡 받을 떡돌 할라구 개왔다”구 했다. 그리구 또 똬서 형들을 딸라잡았다. 형들은 저근이를 큰 나무에다 쫑제 매놓구 갔다. 반편은 또 끼잉 하구 그 나무를 뽑아서 짙어지구 집이루 와서 뜰악에 내리놔다. 오마니가 그건 뭐하레 갓다 논능가 하느끼니 내 잔체할 때 떡매 만들 거라구 했다. 그리구 또 똬가서 형들을 딸라잡았다. 형들은 저근이를 칩이루 쫑쫑 쫑제서 범 앞에 던져 주구 다라놔다. 반편은 힘을 내서 쫑졌던 칩이를 끊구 일어서니까 범들은 이 사람은 산신령인가 하구 잡아먹디 았구 내기 하자구 했다. 반편은 범들보구 우리 다같이 칩이루 몸을 쫑제 개지구 칩이를 끊구 니러나서면 날 잡아먹구 그렇디 았으문 나는 너덜 깝대기를 모주리 베끼갔다구 했다. 범들을 그렇가자 하구 칩이루 몸을 쫑제놓구 범덜은 끊을러구 하는데 끊디 못했다. 그래서 반편은 범에 가죽을 다 베껴서 그걸 짙어지구 갔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 들게 됐다. 권은 반편이 범에 가죽을 많이 가진 걸 보구 구미가 나서 장기 두기 내기 해서 내레 지문 내 딸을 주구 넘체레 지문 그 가죽을 다 달라구 했다. 반편은 인차 그카자 하구 장기를 두었다. 그런데 권은 세 번 두었던데 세 번 다 졌다. 그래서 아무 날 딸을 데레가라구 날자를 덩해 주었다.

그런데 권은 딸을 주기가 싫어서 딸을 데레가디 못하게 하누라구 지봉에두 사람을 두구 넌지간(연자방아간)에두 사람을 두구 딸이 있는 방 앞에두 사람을 두구 해서 지키구 있었다. 반편은 이걸 알구 그날은 우던 가디 았구 다음날 농이(노끈)와 북과 베루디(벼룩)와 빈대를 개지구 갔다. 그 집에서는 어즈 나즈 밤새두룩 한잠두 자디 못하구 지키구 있어서 이날에는 사람덜이 모두 다 자구 있었다. 반편은 지봉에 있는 사람에 상투를 서루 매놓구 넌지간에 있는 사람들은 넌지들에다 상투를 매놓구 집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북을 달아 매놓구 체네 있는 방에다 베루디와 빈대를 뿌레놔다. 그랬더니 체네는 머이 문다 머이 문다 하멘 방에서 나왔다. 반편은 이 체네를 얼릉 업구서 처녀 잡아간다구 과터면서

다라뻘다. 그러느꺼니 지붕에 있던 사람은 내 상투 뇌라 내 상투 뇌라 하멘 고기만 하구 쫓아오디 못하구 년자간에 있는 사람은 내 상투 뇌라 내 상투 뇌라 하구만 있구, 집안에서는 북을 치면서 고구만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반편은 그 체네를 채다가 잘 살았다고 한다.

## 유 화

대상 민담은 한국 설화 유형 분류에 따르면 II 신이담 중 8 초인담에 속한다. 신이담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상적인 초인들의 신비스런 이야기이고, 초인담은 영웅·거인·이인(異人)·신귀(神鬼) 등의 이야기를 말한다.<sup>4)</sup> 유화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임석재 전집 각 편의 출처〉

1. 1권 114~115쪽 외쪽이, 평북 용천군 1932, 벽동군 1936, 선천군 1936 (대상 민담)
2. 1권 115~118쪽 외쪽이, 평북 선천군 1934, 선천군 1937
3. 1권 118~121쪽 외쪽이, 평북 용천군 1936, 정주군 1937, 용천군 1938
4. 1권 121~123쪽 외쪽이, 평북 선천군 1932
5. 4권 231~232쪽 반쪽이, 강원 1975
6. 5권 166쪽 외쪽이, 경기 1930
7. 5권 169쪽 반쪽이, 경기 1927

### 〈한국구비문학대계 각 편의 출처〉

8. 7~16 123쪽 한쫓가리와 반쫓가리 형제, 경북 선산
9. 3~2 367쪽 반쪽 아이의 재주, 충북 청주 1980
10. 4~4 99쪽 외짝이, 충남 보령 1981

### 〈기 타〉

11. 한상수의 한국구전동화, 반쪽이, 충남 1976
12. 신안지역의 설화와 민요, 외쪽쟁이, 전남 1984

4) 조희웅(1996) :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서울, p22.

13. 수원시 미의동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반쪽이, 경기 2003
14. 조선석화백선, 반쪽이 아들, 경북 1960
15. 용인군지, 반쪽이 신랑, 용인 1976
16. 부여의 구비설화, 부자집 딸에게 장가간 반쪽이, 부여군 1983
17. 용인남부지역의 구비전승, 반쪽이, 용인 1995
18.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3, 반쪽이 이야기, 서울 2009

반쪽이 혹은 외쪽이 설화의 유희에 대해서 신연우,<sup>5)</sup> 노영근,<sup>6)</sup> 김금자,<sup>7)</sup> 김환희<sup>8)</sup> 등이 수집하여 소개하고 서사 구조를 정리하였다. 김환희는 목록에 있는 유희 중에 13번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반쪽이>는 서사가 <금강산 호랑이>와 비슷해서 반쪽이 설화의 보편적인 서사 구조에서 벗어나고, 14번과 15번은 반쪽이가 나중에 재주를 넘어 허물을 벗고 신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신하여 ‘두 다리 반쪽이’가 되는 등 특이한 화소가 첨가되어 있어 온전한 구전 민담이라고 보다 동화가 구전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sup>9)</sup>

저자는 수태 음식 제공자, 수태 음식의 종류, 음식을 나누어 먹은 대상, 외쪽이의 고난, 대결하는 힘센 대상, 내기를 한 대상, 처녀를 데리고 올 때 이용한 것으로 항목을 나누어 유희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김환희는 한국 <반쪽이> 설화와 유사한 외국의 설화에 대해 연구하여 <반쪽이> 설화가 아르네-토크스 설화유형 중 <327B번 난쟁이와 거인>과 가장 비슷하다고 하였고, “특히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 이란,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북부 카빌리아에서 전승되어 온 설화들이 한국 <반쪽이> 설화와 가장 비슷하였다.”고 하였다.<sup>10)</sup>

5) 신연우(2002) : “<외쪽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양상”, 《열상고전연구》, 15 : p290.

6) 노영근(2007) :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반쪽이 유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8 : p170.

7) 김금자(2012) : “<외쪽이 설화>의 공간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pp20-23.

8) 김환희(2013) : “한국 <반쪽이> 설화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에 관한 비교 연구”, 《민족문화연구》, 58 : pp377-410.

9) 김환희(2013) : 같은 논문.

10) 김환희(2013) : 같은 논문.

11) Ashliman DL(1987) : *A guide to folktales in the English language*, Greenwood Press, Conneticut, p70.

아르네-톰슨 설화유형 <327B><sup>11)</sup>는 <작은 소년이 식인귀를 무찌르다(The small boy defeats the ogre)>로 페로가 수집한 이야기의 줄거리는 ‘가난한 나뭇꾼과 부인에게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아주아주 작아서 “Hop-o-My-Thumb”라고 불리웠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더 이상 먹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숲에 버렸다. 아들들은 식인귀와 그 딸이 사는 오두막을 발견하여 딸의 방에 있는 침대와 나이트캡을 제공받았는데, 딸은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잠을 잤다. 밤이 되어 Hop-o-My-Thumb는 자신들의 나이트캡과 딸의 금왕관을 바꾸어 썼다. 어두워지자 식인귀는 나이트캡을 더듬어 자신의 딸을 죽였다. 형제들은 도망쳤고, Hop-o-My-Thumb는 식인귀의 부츠 일곱 개와 보물을 훔쳤다.’이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채집된 민담 <반쪽 남자 이야기(The Story of Halfman)>가 <327B> 유형에 해당한다.<sup>12)</sup> 이야기를 요약하였다.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판사가 있었는데, 노인이 열두 개의 사과를 주며 아들 열두 명을 낳을 거라고 했다. 부인이 사과 열한 개 반을 먹고 나머지 반쪽은 자매에게 주었다. 열한 명의 튼튼한 아들과 반쪽 몸만 있는 열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들이 성인이 되어 먼 곳에 사는 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러 떠났는데 식인귀의 집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다. 반쪽 인간만이 주인이 삼촌이 아니라 식인귀인 것을 알아채지만, 형들은 믿지 않았다. 식인귀의 부인이 형제들 위로 붉은 천을 덮고 진홍색 모자를 씌우고 자신들의 딸들 위로는 하얀 천을 덮고 머리에는 베일을 덮어 놓았는데, 반쪽 인간이 바꾸어 놓았다. 여자 식인귀는 붉은 천을 덮고 모자를 쓴 자신의 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형들은 그제서야 도망쳐서 진짜 삼촌의 집에 도착하였다. 삼촌은 형제들이 딸과 결혼하도록 허락하였는데, 반쪽 인간의 부인이 가장 아름다웠다. 시기한 형들이 반쪽 인간을 줄로 매달아 물을 떠오라고 하고는 줄을 끊어 버렸다. 그 때 물고기가 다가와 목숨을 구해주고 자신의 비늘을 주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비늘을 불에 던지면 자신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반쪽 인간이 헤매다가 여자 식인귀와 마주쳐 잡아 먹힐 위기에 처했다가 식인귀의 딸과 친척들을 죽이고 여자 식인귀의 목을 부러뜨렸다. 그 후 반쪽 인간이 사막에서 잠이 들었을 때 여자 식인귀가 다가와 “형이 너의 부인과

12) Lang A(1966) : *The Violet Fairy Book*. Dover Publications, New York, pp345-355.

결혼할 것이다.”고 알려주었고, 반쪽 인간은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였다. 여자 식인귀가 형을 제거해주는 대신에 반쪽 인간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소년을 데리고 가기로 했다. 여자 식인귀가 전갈로 변해 형의 귀 뒤를 물어서 죽이고 반쪽 인간은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여 자신의 부인과 결혼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소년이 성장한 후 여자 식인귀가 소년을 데리고 갔다. 일년이 지난 후 반쪽 인간이 아들과 여자 식인귀를 찾아갔을 때 소년은 더 좋은 새엄마와 새아빠와 살고 있다고 하며 “이제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반쪽 인간은 집에 와서 부인에게 본 것과 모하메드가 말한 것을 모두 말했는데, 모하메드는 반쪽 인간의 아들이고 반쪽 인간은 판사의 아들이라고 전해진다.

김환희는 모티프 ‘T550.6 반쪽 아들이 망고의 절반만 먹은 왕비에게서 태어나다’가 포함된 설화로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채집된 <반쪽이 왕자>의 줄거리를 소개하였다.<sup>13)</sup> 이 <반쪽이 왕자>는 펀자브 지역의 피로즈푸르(Firozpur)에서 영국의 인류학자 템플(Temple)이 어느 소년으로부터 채록하였고 1881년에 <인디안 인콰이어리>(Indian Inquiry 제10집)에 처음 수록되었다.<sup>14)</sup> 요약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자식이 없는 왕에게 탁발승이 와서 망고 나무에 지팡이를 던지면 자식이 생길 거라고 말했다. 망고가 일곱 개 떨어져서 일곱 명의 아내에게 망고를 주었는데, 가장 어린 일곱 번째 왕비에게 준 망고 중 반쪽을 쥐가 먹어 버렸다. 위의 여섯 명의 왕비는 온전한 아들을 낳았지만, 막내 왕비는 반쪽짜리 아들을 낳았다. 눈, 귀, 팔, 다리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무척 잘 자라서 힘도 셧다. 반쪽이 왕자는 형들이 활을 쏘러 나갈 때 자신도 가고 싶어했다. 반쪽이 왕자는 가시 울타리의 작은 틈새를 통해 멜론 밭에 들어가서 멜론을 먹다가 형들이 과수원 주인에게 고자질하여 나무에 묶이게 되었지만 줄(ropes)을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마법적인 힘을 지녀서 줄을 끊고 형들을 따라잡았다. 자두 나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곧 형들을 따라잡았다. 화가 난 형들은 물을 마시려는 반쪽

13) 김환희(2013) : 앞의 논문.

14) Steel FA and Temple RC(1884) “Prince Half-a-son.” *Wide-Awake Stories : a Collection of Tales Told by Little Children, Between Sunset and Sunrise, in the Panjab and Kashmir*, MacMillan and Co., London, pp383-384.

이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고 달아났다. 우물 속에는 눈이 하나 뿐인 악마와 비둘기, 뱀이 살고 있었다. 반쪽이는 어둠 속에서 셋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세 동물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뱀은 자신 밑에 있는 일곱 왕의 보물이 자신의 힘이라고 했고, 악마는 국왕의 딸이 자신에게 빙의되어 있으며 그 딸을 언젠가는 죽일 거라고 말했고, 비둘기는 자신의 똥이 국왕의 딸을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새벽에 악마, 비둘기, 뱀이 떠난 후 반쪽이 왕자는 낙타 물이꾼이 내려 보낸 양동이 줄을 타고 지상으로 올라와 이웃 왕국에 가서 병에 걸린 공주를 치료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를 치료하지 못하면 목을 내놓겠지만 공주를 치료한다면 공주와 결혼하고 왕국의 절반을 얻겠다고 선언한 후에 공주를 비둘기 똥으로 치료했다. 왕이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자 막내의 결혼을 질투한 형들이 반쪽이 왕자는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국왕에게 거짓말을 했다.

형들의 말을 믿은 국왕에게 쫓겨난 반쪽이 왕자는 노새를 달라고 하여, 우물로 내려가서 땅에 묻힌 일곱 왕의 보물을 꺼내어 노새에 싣고 와서 국왕에게 사연을 말했다. 반쪽이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 축제가 열리고 형들은 질투와 부러움에 헐싸여서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동생이 빠졌던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어둠이 내리자 악마, 뱀, 비둘기가 다시 소굴로 돌아왔다. 비둘기가 자신의 똥이 없어졌다고 말하자 셋은 주변을 살펴서 도둑들을 발견하였다. 식인귀 악마가 형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먹어 치웠다.

## 선행 연구

폰 프란츠는 《민담의 상징》에서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가 의식에 합쳐져 전체가 되는 이야기가 민담 〈반쪽이(Der Halbe)〉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 민담 〈반쪽이〉에서 반쪽이가 바닷가에 앉아서 머리가 일곱 개인 말을 그리고 있었는데, 왕이 그에게 다가와 그 말을 찾아오라고 한다. 반쪽이는 길을 떠났고, 사람들에게 의해 불에 던져지고 망치로 두드려진 후 온전한 몸이 되었다. 반쪽이는 징을 울려 머리가 아홉 개인 가루다 새 암컷과 머리가 일곱 개인 가루다 새 수컷을 죽이고, 부인을 얻어 머리가 일곱 개인 말을 찾아서 말을 타고 떠났다. 마을로 오는 길에 뱀이 쫓아왔는데, 쌀을 던져서 뱀은

먹고 또 먹어서 죽었다. 반쪽이는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하였다. 왕은 말을 사기를 원했지만 반쪽이는 거절하고 자신과 부인에게 왕국을 약속해달라고 하여 왕과 왕비가 되었다.<sup>15)</sup> 폰 프란츠는 “많은 전설에서 데몬들이 반쪽 인간으로 묘사되며 반쪽 형상은 무의식적 형상의 특징이다. 무의식에만 붙어 있는 것 또는 의식에만 붙어 있는 것 모두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괴테는 “진지하게 자신의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반쪽을 찾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성 또는 세계를 잡는다. 그리고 전체가 된다.”고 하였다. 온전한 몸이 되는 반쪽이는 일방성을 극복하여 보다 높은 의식성을 획득하게 되며 의식과 무의식의 두 세계를 포괄하는 존재로서 자기(Self)와 비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16)</sup>

국내의 반쪽이 민담 연구를 살펴보면, 김환희는 “한국 〈반쪽이〉 설화를 외국의 유사 설화와 비교할 때, 한국 설화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성은 반쪽이가 무척 힘이 센 장사라는 점”, “색시를 훔쳐올 때 벌이는 난장판이 탈춤 또는 꼭두각시놀이의 그로테스크한 놀이 공간과 유사한 점”, 그리고 “반쪽이와 색시의 결혼이 중요 모티프로 부각된 것”이라고 하였다.<sup>17)</sup> 신연우는 분석심리학적 틀을 이용하여 민담 외쪽이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만, “자아의 힘이란 의식보다 더 근원적인 곳에서 얻어지기에 세계의 강한 힘에도 끝까지 눌리지 않고 결국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갖는다.”와 같이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여 쓴 부분이 발견된다.<sup>18)</sup> 김나영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외쪽이라는 존재가 난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 인식의 전환이자 변신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하고 세계와 관계 맺음에 성공하는 설화라고 해석하였다.<sup>19)</sup> 김기호는 주인공 반쪽이가 청소년기 초기에 부모에게서 심리적으로 분리하고 독립하는 이야기라고 보았다.<sup>20)</sup> 조준호는 반쪽이 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설화를 전래 동화로

15) Hambruch P(2014) : *Malaiische Märchen aus Madagaskar und Insulinde*, 3. Aufl., Holzinger, Berlin. pp76-77.

16) Von Beit H(von Franz ML)(1981) : *Symbolik des Märchens*, 6. Aufl., Fancke Verlag, Bern. pp367-375.

17) 김환희(2013) : 앞의 논문.

18) 신연우(2002) : “〈외쪽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양상”, 《열상고전연구》, 15 : p290.

19) 김나영 (2006) : “비틀어진 인물 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외쪽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 pp131-164.

20) 김기호 (2004) :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pp29-59.

창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의미의 변용 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였고,<sup>21)</sup> 김환희는 전래 동화가 민담의 전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sup>22)</sup>

위에 소개한 국내의 <외쪽이> 설화, <반쪽이> 설화 관련 연구들은 외쪽이 혹은 반쪽이를 자아 또는 인간으로 해석하여, 불완전한 몸을 가진 주인공이 기형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성장 과정으로 보았다.

저자는 심층 무의식을 살피는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민담을 원형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라고 보았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 모두를 원형상으로 보았다. 외쪽이를 자아가 아닌 원형상으로 볼 때 무의식에서 탄생한 정신이 의식의 일부가 되어, 인간이 조금 더 높은 의식성을 가지고 전체 정신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폰 프란츠는 “사람들은 원형상을 이해할 때 얻게 되는 새로워짐(renewal)을 필요로 하고 갈망한다.”고 하였다.<sup>23)</sup>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민담에 드러난 원형상을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 상을 해석할 때 확충(amplification)의 방법을 쓴다. ‘이상은 이런 의미이다.’라고 지적으로 기호를 풀어 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이 등장하는 많은 민담, 전설, 이야기를 찾아서 상징이 내포하는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는 방식이다.

또한, 민담은 여러 사람에 의해 구전되면서 집단 정신에 맞지 않는 부분은 걸러지고 집단의 정신적 상황과 부합하는 부분만 반복되어 이야기된 것이므로 한 개인의 심리보다는 집단 전체의 정신의 상황, 집단적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민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집단적 의식을 보상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작용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심리학적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민담 <외쪽이>를 해석하여, 민담에 표현된 집단적 무의식의 정신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조준호 (2013) : “반쪽이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의 의미 변용 연구”, 《한국문예창작학파》, 12(2) : pp139-167.

22) 김환희(2013) : “전래동화가 옛이야기 전승에 미치는 영향 : <반쪽이> 이야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 pp97-117.

23) Von Franz ML(1996) : Ibid, p45.

## 서사 구조

신연우는 〈외쪽이 설화〉의 주된 화소가 “외쪽이의 탄생, 형들의 과거길, 호랑이 물리치기, 외쪽이의 혼인”이라고 하였고,<sup>24)</sup> 김환희는 “〈반쪽이〉 설화의 네 가지 핵심 서사 내용은 “1) 수태 과일(물고기)을 매개로 한 반쪽이의 신이한 탄생, 2) 반쪽이 형들의 괴롭힘, 3) 호랑이 퇴치, 4) 부자집 딸 보쌈과 결혼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5)</sup>

저자는 민담의 해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부처에게 빈다.
- 2) 하얀 영감이 와서 고기 세 마리를 주는데, 고양이와 와서 반 마리를 먹어서 부인은 고기를 두 마리와 반 마리만 먹는다.
- 3) 온전한 아들 둘과 세 번째 아들 외쪽이(반편이)가 태어난다. 외쪽이는 잘 성장한다.
- 4) 형들이 과거 보러 갈 때 따라간다. 형들은 외쪽이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해서, 외쪽이를 바위에 묶어 놓는다. 외쪽이는 바위를 뽑아 뜰에 가져다 놓는다. 형들이 외쪽이를 다시 나무에 묶어 놓지만 외쪽이는 나무를 뽑아서 뜰에 가져다 놓는다.
- 5) 형들이 외쪽이를 칩으로 묶어서 호랑이 앞에 던져 놓는다. 호랑이와 칩 끊기 내기를 해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 온다.
- 6) 숙소 주인과의 장기 내기에서 이겨 주인의 딸을 데려오기로 한다. 외쪽이는 다음날 노끈, 북, 벼룩, 빈대를 가지고 가서 지키고 있던 주인집 사람들을 꿀탕 먹이고 처녀를 보쌈해 온다.

## 분석심리학적 해석

꿈과 민담을 해석할 때 제시부(exposition), 전개부(peripeteia), 절정(climax),

24) 신연우(2002) : 앞의 논문, p290.

25) 김환희(2013) : “한국 〈반쪽이〉 설화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에 관한 비교연구”, 《민족문화연구》, 58 : pp377-410.

해소부(lysis)로 구성된 극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다.<sup>26,27</sup> 1이 제시부, 2, 3, 4가 전개부, 5가 절정, 6이 해소부에 해당한다. 이제 민담 <외쪽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을 시작하겠다.

### 1.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처에게 빌었다.

민담은 흔히 ‘옛날 옛적에’로 시작한다. 대상 민담도 ‘넷날에’로 시작한다. ‘옛날에’라는 단어는 민담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현재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로 돌아가 합리성은 잠시 내려놓고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가 전개되어도 용납한다. 폰 프란츠는 ‘옛날 옛적에(once-upon-a-time)’는 엘리야테가 말한 ‘태초의 그때(illud tempus)’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28</sup> Illud tempus는 시간과 무시간 사이의 좁은 틈, 세속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창조적 순간이다.<sup>29</sup> 분석심리학적으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 즉 원형의 차원(archetypal dimension)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넷날에 어드런 난이 아를 낳디 못해서 아 낳게 해 달라구 부테한테 늘 빌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은 삶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이 항상 똑같은 의미가 없는 듯이 느껴지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하고 침체된 상태이다. 그럴 때 자신을 넘어서 존재에게 간절히 비는 태도를 가지면 무의식에서 새로운 것이 의식으로 올라 오게 된다. 연금술에서 원질료에서 목표로 하는 것-회고 붉은 텅크제나 현자의 돌, 만병통치약, 현자의 금 등-을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도 내면의 무의식에 집중하는 연금술사들의 심적-정신적 상태와 입장이 강조되었다.<sup>30</sup>

폰 프란츠는 영웅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긴 불임의 기간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울하고 침체되고 무력한 시기에 무의식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며, 중요한 일

26) 이부영(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파주, p42.

27)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 융 기본저작집 1권 《꿈의 특성에 관하여》, 솔, 서울, p223.

28) Von Franz ML(1996) : Ibid, p39.

29) Von Franz ML(1992) : *Psyche and Matter*, Shambhala, Boston, p105.

30)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융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서울, pp34-74.

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에서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31)</sup>

부처에게 비는 것은 의식의 자아를 넘어선 존재에게 묻는 것이며, 무의식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무의식에서 생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태도이다.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아를 중심으로 한 의식의 견해와 판단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뭔가 무당하다고 느끼고 점차 의욕을 잃고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태도로 순응적이 되려고 더욱 노력하는 경우라든지, 사회에 자신이 설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과 기회는 알아채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나 시험에 계속 매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태도, 가치관, 시대 정신은 무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우울증을 포함한 노이로제가 불임의 상황에 해당한다. 희망 없음의 상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무력감에 압도된다. 용은 노이로제는 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였다.<sup>32)</sup> 의식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우울해지면 에너지가 내면을 향하게 되고, 무의식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무의식의 내용이 활성화된다. 무의식에서 환상, 생각, 착상, 느낌 등이 떠오르며 자아가 그것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은 지하로 내려가 보물을 찾아 마을로 돌아오는 영웅 신화의 모티프이다. 용은 “정신이 자발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의식에서 유래하지 않은 모티프가 꿈이나 환상에 등장할 때 변환, 즉 치유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원형적 성질을 가진 내용이거나 그것과의 연결이다. 정신의 자발적 활동은 때로 아주 강렬해서 환상이 보이거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한 경험은 알 수 없는 미로에서 고통받는 자를 위한 보상이 된다. 그때부터 혼란한 가운데 빛이 드리우게 되며, 자신 안에 있는 분열을 수용하고, 그의 본성에 있는 병적인 분열을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해소하게 된다.”고 하였다.<sup>33)</sup>

민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게 해 달라고 부처에게 비는

31) Von Franz ML(1999). *The Cat :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Inner City Books, Toronto, pp27-29.

32)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 C.G. 융의 인간심성론》 제3판, 일조각, 서울, p223.

33) Jung CG(1969) : CW 11, “Psychotherapists or the Clerg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p346.

것은 분석심리학적으로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에 겸허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의 자발적 활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태도이며, 이제 무의식에서 정신의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여 의식과 연결되고 통합되려고 한다.

## 2. 하얀 영감이 와서 고기 세 마리를 주는데, 고양이가 와서 반 마리를 먹어서 부인은 고기를 두 마리와 반 마리만 먹는다.

‘썩한’은 ‘새하얀’이라는 뜻이다. 흰색은 새로움과 시작을 의미한다. “흰색이 검은색의 대극일 때 흰색은 순수함, 선, 결백함을 의미하고 검은색은 탁함, 탐욕, 사악함을 의미한다.” “연금술에서 흰색은 아이 같은 순수함, 무지, 미숙함을 뜻하며, 한편으로는 재, 쓰디쓴 고통의 소금, 어렵게 얻은 지혜, 노현자 혹은 지혜로운 노파의 백발이다. 백화(albedo)는 빛을 비춤, 깨달음, 의식에 미지의 인격이 떠오르는 것이다.”<sup>34)</sup>

하얀 영감은 노현자 상이며 정신(Geist)을 상징한다. 노현자 상으로 나타난 가이스트가 집단적 무의식에서 작용하여 의식과 접촉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세, 태도가 생겨난다. 이부영은 샤먼이 되는 입무 과정에서 강신의 꿈과 그 상징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김태곤과 최길성, 장주근이 수집한 입무 사례에서 나타나는 하얀 할머니, 죽은 친정아버지, 하얀 할아버지 혹은 점잖은 할아버지가 책, 목탁 등의 귀중한 것을 주는 꿈을 소개하고 분석심리학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꿈에 죽은 사람이나 하얀 노인이 나타나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거나 귀중한 것을 주는 일은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도 자주 나오고 다른 민족에도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며, 분석심리학적 언어로는 “자아가 무의식의 심층에서 얻는 누미노제적인 삶과 통찰의 표현이다.”라고 하였다.<sup>35)</sup> 융은 한 신학도의 꿈을 소개하며 흰 마법사와 검은 마법사가 “우월한 장인(匠人)이자 스승인 노인의 두 측면이고, 이전부터 존재해 온 혼돈의 삶에 감추어진 의미를 나타내는 정신(Geist) 원형의 두 측면이다.”라고 하였다. 하얀 영감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지혜를 전달해준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부처에게 빌었을 때, 즉 자신의 내면을 향하고

34)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2010) : *The Book of Symbols*, ed. by Ronnberg A, Taschen, Köln, p660.

35)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광주, pp99-101.

내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지혜에 귀 기울였을 때 하얀 영감이 나타나서 무의식의 지혜를 전달해 준다. 창조성을 잃고 무기력해진 의식에 집단적 무의식의 가이드스트가 활기를 줄 수 있는 선물을 가져다준다.

그가 준 것은 고기 세 마리이다. 이는 유화에 따라 다르다. 대상 민담과 민담 3에서는 고기 세 마리이지만, 면담 2에서는 무 세 개, 민담 4에서는 아이 낳는 약 세 알, 민담 5에서는 오이 세 개이고, 그 외에 꽃감 세 개, 나무 열매 세 개, 참외 세 개, 복숭아 세 개를 먹고 아이를 잉태한다. 편자브 지방의 <반쪽이 왕자>에서는 왕비들이 망고 열두 개를 먹은 후 열한 명의 온전한 왕자와 한 명의 반쪽이 왕자가 태어난다. 열매는 식물, 나무, 뿌리, 대지와 관련되어 있고, 열매를 발견하거나 먹는 것은 태몽으로도 자주 나타난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다가 발아하여 식물이나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성장과 순환, 재생의 상징이다. 열매가 되는 씨앗은 미래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의식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의식의 정신적 내용이다.

고기는 물에서 건져 올린 것, 무의식에서 잡은 것이다. 용은 “꿈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때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를 상징한다. 아기는 출생 전에 물고기처럼 물 속에 있다. 태양이 바다에 잠기면 아기와 물고기가 된다. 물고기는 새로워짐과 재탄생을 상징한다.”<sup>36)</sup>고 하였다.

인도의 홍수 신화에서는 물고기가 마누 앞에 나타나 홍수의 위험을 알려주고 배를 만들 것을 권유하며, 홍수가 났을 때 물고기 자신의 뿔에 배를 묶어 북쪽 산으로 끌고 가서 마누를 구한다.<sup>37)</sup> 마누는 길가메쉬 서사시의 우트나피쉬팀과 같으며 물고기는 신들의 의도를 알려주는 신인 지혜의 왕자 에아에 상응한다. 즉 인도 홍수 신화에서의 물고기는 의식의 태도가 자기(Self)의 의도와 일치되지 않아 무의식이 범람할 때 자아가 위험을 알아채고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물고기를 먹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집단적 무의식의 소중한 정수(精髓)가 의식에 전달되어 새로운 형태로 실현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고기의 반을 고양이 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야행성·육식성 포유동물이다. 고양이는 어두운 곳에서

36) Jung CG(1956) : CW 5, *Symbols of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p198.

37) Frazer JG(2013) : *The Great Flood*, Jason Colavito, New York, pp67-71.

잘 볼 수 있고, 양안시가 뛰어나서 입체적으로 보는 눈의 기능이 뛰어나다.<sup>38)</sup> 이집트의 태양신 라(Ra)가 지하 세계의 아포피스 뱀(Apophis serpent)을 물리칠 때 세크메트(Sechmet)를 보내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는 힘을 이용하였다. 세크메트는 사자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고양이 머리를 가진 바스테트(Bastet)와 연관된다.<sup>39)</sup>

고양이는 쥐를 잡아 병귀를 물리친다고 생각되고, 민간에서는 귀신에 놀랐을 때 고양이를 삶은 즙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양이는 주술적 동물로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고양이를 썰 죽이면 도둑도 주문대로 눈이 멀거나 손이 오그라든다고 한다.<sup>40)</sup> 고양이는 악하고 잘못된 것을 감지하여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동물로 여겨진다.

〈개와 고양이의 보은〉 민담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주인의 구슬을 찾아 주러 길을 떠난다. 구슬을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렸을 때, 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고양이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구슬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다. 그때부터 주인이 고양이는 이부자리에 같이 재우고 개는 밖에서 지내게 했다고 한다. 고양이는 쥐를 다룰 줄 아는 습성과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사람의 순진함과 악에 대한 무지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

고양이는 매우 모성적인 동물로 새끼를 잘 보살피며, 새끼에게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아주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고양이는 쥐를 잡고 나서 바로 먹지 않고 한참 갖고 놀다 먹어서 잔인하다고 여겨지고, 괴롭힘을 당하면 보복을 한다고 믿어진다.

바바라 한나는 고양이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측면, 질병을 유발하면서 또한 치유의 주술을 쓰는 측면, 한가하고 여유롭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측면, 독립적이고 영리하며 자신의 본성에 따르는 측면에 대해 기술하고 꿈이나 적극적 상상에서 고양이가 등장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sup>41)</sup>

38) 김인규: 국립중앙과학관 : 포유류 · 양서 · 파충류정보,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2091&cid=46677&categoryId=46677>.

39) 한국문화상징사전(1992). 동아출판사, 서울.

40) 한국문화상징사전(1992). 같은 책.

41) Hannah B(1992) : *The Cat, Dog and Horse Lectures*, Chiron Publications, Illinois, pp65-82.

고양이가 여인의 고기 중 반을 뺏어 먹고 외쪽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외쪽이의 없는 반쪽이 고양이의 성질과 연관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외쪽이의 출생, 즉 무의식에서 새로 의식으로 진입한 낯선 정신적 내용에 고양이가 지닌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직관, 악을 퇴치할 수 있는 용기와 집요함, 그리고 본성을 따르는 성질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외쪽이의 탄생에는 하얀 영감이 준 물고기와 고양이가 같이 작용한다. 하얀 영감이 준 물고기를 다 먹으면 온전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지만, 고양이가 반쪽을 먹어서 외쪽이가 태어났다. 고양이가 외쪽이를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하얀 영감이 가이스트로서 정신적인 내용을 상징한다면 고양이는 동물적 본성과 좀 더 가까운 성질을 상징한다. 대극적인 성질을 가진 원형이 작용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신적 내용을 탄생시켰다.

고양이 외에 유화에서 나누어 먹은 대상을 살펴보면, 민담 2에서는 무를 이웃집 여자가 먹고 싶어해서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민담 3에서는 고기를 남편이 너무 먹고 싶어해서 나누어 먹었다. 민담 4는 나누어 먹은 대상 없이 알약을 두 알 반을 먹었고, 민담 5에서는 오이의 반이 썩어서 도려내고 반쪽만 먹었다. 민담 6에서는 남편이 꽃감 반쪽을 뺏어 먹었고, 민담 7에서도 남편이 같이 먹자고 하여 나무 열매를 나누어 먹었다. 민담 9에서는 부인이 못 먹고 남긴 참외 반쪽을 이웃집 늙은이가 먹어 버렸고, 민담 10에서는 남편이 같이 먹자고 해서 오이 반쪽을 나누어 준다.

저자는 고양이가 고기의 절반을 먹어 외쪽이가 태어나는 장면의 역동성에 매료되어 고양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대상 민담으로 선택했지만, 더 많은 유화에서는 남편이나 이웃집 사람이 반쪽을 먹는다. 같이 먹은 대상이 너무 먹고 싶어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타인이 먹어 버리기도 한다. 민담에서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태도는 대개 보답을 받는데, 겉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힘이 세고 귀한 것을 성취하는 외쪽이가 그 보답이다. 또한 의식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빈 틈이 없으면 우연이나 무의식의 작용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주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경우에 의식의 의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여 새로운 것을 태어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무의식의 상과 내용을 의식화할 때도 의식의 작용을 절제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 3. 온전한 아들 둘과 세 번째 아들 외쪽이(반편이)가 태어난다. 외쪽이는 잘 성장한다.

아이가 없던 여인이 하얀 영감이 건네는 고기를 먹고 온전한 아들 둘과 외쪽이를 낳는다. 부부 간의 관계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아기를 낳은 것은 비범하고 신이(神異)한 출생이다. 폰 프란츠는 “잉태는 미래에 일어날 의식적 과정의 전조”라고 하였다.<sup>42)</sup> 융은 “비범한 출생이란 일종의 생성의 체험을 묘사하려는 것”이며 “창조적인 성질을 지닌 정신적 체험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체험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의 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형상은 앞으로 이루어질 전체성이다.”라고 하였다.<sup>43)</sup>

어린 아이들 세 명이 태어나고 그 중 막내는 외쪽이, 반편(半便)이다. 어린이는 무의식에서 이제 막 태어난 정신적인 경험이다. 막내는 상징적으로 집단적 의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내용으로 많은 민담에서 셋째 혹은 막내가 형들이 이루지 못하는 과제를 완수하여 공주와 결혼하고 왕국을 이어받거나, 셋째 딸이 부모의 기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여 고통을 겪은 후 소중한 것을 가져온다.

로드니 니드햄은 “반쪽 형상(unilateral figure)은 눈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 등 한쪽 편이 신체만 갖고 있는 상상 속 존재이다. 주로 사람이지만 사람의 형태를 가진 신비적 존재, 또는 정령이기도 하다. 대개 세로로 이등분된 신체를 가지며 움직일 때는 한 발로 뛰어다닌다.”고 하였다.<sup>44)</sup> 매튜 쇼펠리어즈는 “반쪽 형상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신화적 주제이며, 많은 문화에서 신과 정령이 한쪽만 있는 의인화된 존재로 그려진다.”고 하였다.<sup>45)</sup> 니드햄은 “반쪽 존재(one-sided being)는 집단적 무의식의 표상으로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모티프의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반쪽 존재는 아웃사이더 혹은 이방인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아웃사이더에게 괴물 같은 성질이 부여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반쪽 존재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 추정된다.”고 하였다.<sup>46)</sup>

42) Von Franz ML(1992) : Ibid, p1.

43) Jung CG/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회(2002) : “어린이 원형의 심리학에 대하여”, 《원형과 무의식》, 숲, 서울, pp255-257.

44) Needham R(1980) : *Reconnaissanc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p20.

45) Schoffeleers M(1991). “Twins and Unilateral Figures in Central and Southern Africa : Symmetry and Asymmetry in the Symbolization of the Sacred”, *Journal of religion in Africa* 21: p345.

46) Needham R(1980) : Ibid, p35.

스티스 톰슨이 편찬한 《Motif Index of Folk Literature》의 ‘Half’ 모티프에는 ‘소년이 반으로 쪼개져서 각각의 반쪽이 소년이 되었다(boy cut in two : each h. becomes a boy T589.2)’, ‘머리가 하나이고 몸은 반쪽인 반쪽 귀신(ghost with h. a head, carries h. body E261.1.3)’, ‘망고 반쪽을 먹은 왕비에게서 반쪽이 아이가 태어나다(only h. a child born to queen eating half a mango T550.6).’, ‘반쪽 몸만 있는 사람(person with h. a body F525)’ 등이 수록되어 있다.<sup>47)</sup>

어떤 창조 신화에 의하면 인류를 창조할 때 반쪽으로 생긴 인간을 만들 것인지, 양쪽으로 대칭인 인간을 만들 것인지 신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서 세람의 설화에서는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바나나 나무와 돌이 심하게 다투었다고 전한다. 돌은 인간이 한 팔과 한 다리, 한 눈, 한 개의 귀만 있는 오른쪽 반쪽의 형상으로 죽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바나나 나무는 인간이 두 팔과 두 다리, 두 눈,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세상에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다. 돌이 다투다가 바나나 나무가 이겨서 인간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죽는 존재이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다.<sup>48)</sup> 반쪽 형상은 돌의 특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불멸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반쪽만 있는 존재여야 하는지, 아니면 눈, 귀, 팔, 다리가 모두 두 개씩 있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다투는 신화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sup>49)</sup> 아프리카 창조 신화에서 신은 원래 반쪽만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 Rwanda의 Kumbi인들의 태양신인 Liova는 남자 두 명과 여자 두 명을 만들었다. 하루는 Liova가 그의 딸인 Mwezi(Moon)에게 이 인간들이 서쪽에서 번식하고 살게 해주라고 말하지만, Mwezi는 반쪽만 있는 이들이 생식 능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Liova가 그들을 양쪽으로 만들어 주었고 생식 능력을 얻었다.<sup>50)</sup>

다른 신화에서는 한 여성이 열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절름발이었다. 형들이 그를 놀리자 절름발이 소년은 Mvidi Mukulu(God)를 찾아 하늘로 가서

47) Thomson S(1960) :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Vol 6.1*,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359.

48) Jensen A, Niggemeyer H/이혜정 역(2014) : 《하이누엘레 신화》. 뮤진트리 서울, pp75-76.

49) Jensen A, Niggemeyer H(2014) : 같은 책, pp75-76.

50) Schoffeleers M(1991) : Ibid, pp350-351.

“저는 다리를 치료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한 Mvidi Mukulu는 또 다른 Mvidi Mukulu에게 “나는 한쪽 귀, 한쪽 눈, 한쪽 엉덩이만 가진 인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가 양쪽이 있는 인간을 만들라고 했지. 나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는 하나는 완전하고 하나는 절름발이로 만들었어.” 하고 말했다. Mvidi Mukulu는 절름발이를 치료해 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한다. “절름발이와 불구자가 놀림 받아서는 안되며,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다.”<sup>51)</sup>

매튜 쇼펠리어즈는 “창조 신화에서 신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을 닮은 반쪽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반쪽 형상의 인간은 불멸이지만 생식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양쪽으로 대칭이고 생식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그 대가로 인간은 죽어야 한다.”고 하였다.<sup>52)</sup>

플라톤의 향연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세 가지 형태, 남자와 남자가 붙어 있는 형, 여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형,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는 형으로 존재했는데 “그것들은 힘이나 활력이 엄청났고 자신들에 대해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신들을 공격했다.”고 전해진다. 제우스는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간들 각각을 둘로 자르고, 자른 후에도 “여전히 제멋대로 굴고 얌전히 있으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둘로 잘라서 외다리로서 서서 경중거리며 걸어 다니게 만들겠다.”고 협박한다. 인간은 이렇게 그들의 본성이 둘로 잘렸기 때문에 반쪽 각각은 자신의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옛 본성을 함께 모아 주며, 둘에서 하나를 만들어 내어 인간 본성을 치유하려 노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들은 신들에 대해 얌전히 굴지 않으면 “다시 쪼개져서, 마치 묘석에 얹은 돌을새김으로 윤곽이 새겨져 있는 자들처럼 코 쪽을 중심으로 잘려 마치 반쪽 주사위처럼 된 상태로 헤매어 다니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53)</sup>

반쪽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나머지 반쪽을 찾아온다는 내용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말레이시아의 〈반쪽이 삼파파스〉라는 민담을 보면 자식이 없는 부부가 보름달도 먹어 버리는 욕심쟁이 바름에게 반쪽이라도 좋으

51) Schoffeleers M(1991) : Ibid, p351.

52) Schoffeleers M(1991) : Ibid, p345.

53) Platon/강철웅 옮김(2016) : 《향연》, 이제이북스, 서울, pp96-104.

니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빌고 나서 눈, 귀, 손, 발이 반쪽인 사내아이가 태어난다. 몸이 성치 못하다는 뜻의 삼파파스란 이름을 받았고 무럭무럭 자라서 한쪽 다리로 팔짝거리며 이곳저곳 뛰어다녔다. 삼파파스는 모든 게 제멋대로인 말쑥꾸러기, 개구쟁이였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모 속을 썩였다. 그래서 부모는 삼파파스에게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에 가서 나머지 반쪽을 찾아오라고 했다. 삼파파스는 부모가 준 단검을 차고 길을 떠나 바롭의 외할아버지 키노로 형안을 만나 사정을 얘기했다. 할아버지는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네 부모님이 반쪽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굴었거든.”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한쪽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어 둘은 합쳐져 완전한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한몸이란 뜻의 상이난이란 이름을 얻는다. 키노로형안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곧 후회하게 된다.”는 말을 종족에게 전하라고 한다.<sup>54)</sup>

서 세람 설화 <반쪽 인간과 쌀 도둑>에서는 타우날라라는 한 여자에게서 타우날라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귀도 하나, 눈도 하나, 코도 반쪽, 입도 반쪽, 팔 하나, 다리 하나씩 모두 오른편만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매우 느리고 일을 하는데 힘들어서 다른 반쪽을 찾아야겠다고 길을 떠나 창조주 두니아이에게 도움을 청했다. 두니아이가 왼쪽 반쪽 아이와 타우날라를 단지에 넣고 죽을 쑤어 둥근 덩어리로 반죽하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코에 숨을 불어넣자 타우날라가 살아났다. 타우날라는 집에 돌아왔다가 열흘 후 다시 두니아이에게 가서 범씨를 훔쳐 왔다.<sup>55)</sup>

또 다른 서 세람 설화 <욕하는 여인과 반쪽 아들>에서는 실로라는 여인이 임신 중 계속 욕을 해서 오른쪽 반쪽 몸만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여기서는 실로가 아이를 위해 다른 반쪽을 찾겠다고 동쪽의 좁은 길로 걸어가서 두니아이를 만난다. 두니아이는 여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나머지 반쪽 인간을 찾아 완전한 소년으로 만들어 준다. 반쪽 인간은 신으로부터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오는, 일종의 문화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다.<sup>56)</sup>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의 키오쿠웨(Kioque)족의 신화에서는 몸이 반쪽 밖에 없는

54) 정영림 편역(2011) : 《반쪽이 삼파파스》, 창비, 파주, pp95-101.

55) Jensen A, Niggemeyer H(2014) : 앞의 책, pp152-154.

56) Jensen A, Niggemeyer H(2014) : 앞의 책, pp154-157.

한 늙은 노파로부터 처음 곡식을 얻었다고 한다.<sup>57)</sup> 말레이시아 민담 〈반쪽이 삼파파스〉와 〈욕하는 여인과 반쪽 아들〉에서는 인간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반쪽이 출생의 원인으로 제시된다.

인도네시아 니아스(Nias) 지역의 이야기에서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신께 빌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태어난 반쪽 소년은 신이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 여행을 떠난다. 반쪽 소년은 지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와 관련되어 태어난 아이이다.<sup>58)</sup> 대상 민담의 반쪽이도 보통의 방식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새하얀 영감이 준 고기를 먹고 태어나며, 이는 가이스트의 작용으로 의식에 출현하게 된 심성을 상징한다. 반쪽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호랑이도 산신령인 줄 알고 잡아먹지 않는 데서도 드러난다.

반쪽이어서 나머지 반쪽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쪽 모양으로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다. 《산해경》에는 이상한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기고국 혹은 기굉국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팔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산다. 이 나라 사람들은 눈이 세 개였으며 재주가 뛰어나서 신기하고 정교한 기계들을 만들어 날짐승을 잡았고, ‘하늘을 나는 수레’를 만들어 타고 다녔다고 한다. 일비국 사람들은 팔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눈과 콧구멍, 다리도 모두 하나뿐인 ‘반쪽짜리 사람’이어서 이들을 반체인이라고도 불렀다. 비견민도 일비국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sup>59)</sup>

캐롤 로즈는 《정령, 요정, 난쟁이와 마귀 : 작은 사람들의 백과사전》에서 몸의 반쪽만 가진 존재들을 소개하였다.<sup>60)</sup> 나샤스(Nashas)는 예맨(Yemen)과 하드라뭇(Hadramut)의 이슬람 시기 이전의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정령(djinn)이다. 그들은 인간과 쉬끄(Shiqq)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이 육신을 얻을 때면 팔 하나, 다리 하나, 머리 반쪽만 있는 반쪽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비뿔어진 뷰라흐(Biased bheulach)는 스코틀랜드 민담에 등장하는 악령으로 그레이하운드 혹은 다리가 한쪽뿐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밤에 울부짖는 소리와 비명이 들리고, 양쪽 다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죽어 있

57) Jensen A, Niggemeyer H(2014) : 앞의 책, pp35-36.

58) Jensen A, Niggemeyer H(2014) : 앞의 책, pp152-159.

59) 김선자(2011) : 《김선자의 이야기 중국신화(하)》, 웅진씽크빅, 서울, pp367-375.

60) Rose C(1996) : *Spirits, Fairies, Leprechauns, and Goblins : An Encyclopedia*, Norton, New York.

는 한 사람이 발견된 뒤로 비뿔어진 뷰라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도도레(Dodore)는 솔로몬 제도의 말라이타 사람들의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작은 사람이다. 도도레는 다리 하나, 팔 하나, 눈 하나씩만 있고, 말의 꼬리처럼 생긴 아주 길고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는데 긴 손톱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파찬(Fachan)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고지의 민담에 등장하는 흉측한 고블린(요괴)이다. 그는 가슴에 달린 손 하나, 골반에 달린 다리 하나, 눈 하나, 머리카락 한 다발이 있고, 모든 것이 깃털로 거칠게 짜여진 망토에 가려져 있다. 악한 정령으로 사막에 살면서 길을 잃은 사람을 공격한다. 힌키-펀크(Hinky-Punk)는 영국의 웨스트컨트리 민담에 등장하며 다리 한 쪽만 있는데, 여행자들을 습지로 끌어들이다. 파이자(Paija)는 캐나다의 이누이트(Inuit) 족과 이할미웃(Ihalmiut) 족의 민간 신앙에 등장하는 악령으로 성기 부위에서 뻗어 나간 다리 한 쪽만 있고 몸을 덮는 길고 검은 머리를 가진 그로테스크한 여성 모습으로 나타나서, 눈보라 속에 갇힌 남자를 찾아 잡아먹는다.

아프리카에는 원래는 온전한 대칭적 형상이었다가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어 반쪽 형상이 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다리 하나, 팔 하나, 귀 하나, 눈 하나씩만 가진 바수토인들의 matebele, 사후에 양분되어 반쪽 인간으로 존재하는 Zambia Tabwa인들의 visbanda 혹은 viswa가 있고, southern Malawi의 Mang'anja인들의 정령 ziwanda는 죽은 마녀이다. Zambia의 vibanda 혹은 viswa는 마법사들에 의해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정령이다.<sup>61)</sup> 《하이누웰레 신화》의 12번 신화 〈하이누웰레 소녀〉에서는 하이누웰레가 살해당한 후 아버지가 시신을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 반만 조각내서 땅에 묻었는데, 그 자리에서 구근들이 생겨났다고 한다.<sup>62)</sup>

이탈로 칼비노의 소설 〈반쪼가리 자작〉에는 전쟁에서 몸의 반쪽을 잃고 돌아온 메다르노 자작이 등장한다. 오른쪽 몸만 있는 자작은 잔인하고 사악하며 동정심이 전혀 없다. 왼쪽 몸만 있는 자작은 너무 선하기만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그들은 여인 파멜라를 동시에 사랑하여 결혼을 위해 겨루다가 서로 합해져 하나가 된다.<sup>63)</sup>

61) Schoffeleers M(1991) : Ibid, pp347-348.

62) Jensen A, Niggemeyer H(2014) : 앞의 책, pp35-36.

63) Calvino I/이현경 역(2014) : 《반쪼가리 자작》, 민음사, 서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큰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게 된 한 남성은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오는 꿈, 폭발사고로 자신의 얼굴의 반쪽이 날아가 버리는 꿈을 꾸었다.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오는 꿈에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의 부인이 휠체어를 밀어 주고 있었는데, 관계를 맺어 주고 품어 주는 여성적 심성이 그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생각되었다.

게르만 신화에서 오딘 이전까지 최고의 신이었던 티르는 암흑의 괴물 펜리스 늑대와 대립할 때 펜리스를 묶기 위해 자신의 손을 펜리스의 입에 집어넣어 오른손을 잃었다. 최고신 오딘이 외눈이인 것처럼 티르도 외팔이다. 이들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여 자신의 한 부분을 상실한 자들이다.<sup>64)</sup> 눈과 팔을 잃은 대신에 오딘은 룬 문자를 얻었고 티르는 펜리스 늑대를 제압할 수 있었는데, 고통과 시련, 희생의 경험을 통해 이전의 자신이 죽고 재생과 변환이 일어난다.

그리스 신화의 키클로프스는 애꾸눈의 거인족으로 법도, 경작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잡아 먹는 괴물이다. 그들은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직인이라고 생각되며 불을 중심으로 한 자연의 창조력과 파괴력의 상징으로 생각된다.<sup>65)</sup> 외눈은 각성의 눈이 하나로 열렸다는 의미에서는 신의 눈, 영원의 눈, 자기 충족을 상징한다. 신성한 건축물에서 ‘눈의 창(眼窓)’은 신전, 교회당, 천막집 등 전통적으로 성별(聖別)된 ‘세계의 중심’의 둥근 천장 가운데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이다. 눈의 창은 태양과 결부된 문의 입구로 하늘과 서로 통하게 된다. 대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외눈은 하늘과 연결된 창이며 신의 눈이다.<sup>66)</sup>

‘외눈의 부처’라는 말은 ‘하나 밖에 없는 눈의 동자라 함이요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며, ‘외눈통이 쇠뿔에 받혔다.’라는 말은 ‘하나 밖에 없는 눈통이 쇠뿔에 받혔다 함은 매우 심한 곤경을 겪은 것이 되나 이 말은 반대로 애중하여 조심한다는 뜻’이라고 한다.<sup>67)</sup> 외눈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프리카에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반쪽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한쪽 발을 저는 Dinema라는 새는 아주 크고 물가에 살며, 가난한 자들의 수호새이

64) 안인희(2007) : 《북유럽신화1》, 웅진지식하우스, 서울.

65) 한국사전연구소(1998) : 《종교학대사전》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0530&cid=50766&categoryId=50794>.

66) Cooper JC/이윤기 옮김(2001)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p123.

67) 이기문(편)(1980) : 《속담사전》. 일조각, 서울.

고, 살아 있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한 존재이며, 적을 추적할 때는 죽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는 다리를 사용한다고 한다. Southern Malawi에는 날개 하나, 눈 하나, 다리 하나만 있는 큰 새가 있는데 강이 넘쳐흐를 때 아이들을 운반해 준다. Tanzania의 Nyamwezi인들도 ‘하늘의 사람’이라는 반쪽만 존재하는 정령을 믿는데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고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옮길 수 있다. Tabwa인들의 Luwe라는 정령은 반쪽만 존재하며 맹수들을 사냥할 때 행운을 가져다준다.<sup>68)</sup>

매튜 쇼펠리어즈는 절름발이가 저는 다리를 치료하려고 Mvidi Mukulu를 찾아 하늘로 가는 신화에서 절름발이의 작은 신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절름발이의 잃어버린 부분은 좀 더 상위의 영역에 존재하며, 따라서 절름발이는 대칭 형상을 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에 접근 가능하다고 하였다.<sup>69)</sup>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영화화한 두리안 스케가와와의 소설 <양 : 단팔 인생 이야기>에 나오는 할머니 도쿠에는 나병을 앓아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단팔이 견뎌 온 바람과 세월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여인이다. 도쿠에는 슬픈 눈을 가진 센타로에게 단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사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전해 준다. 타인에게 종속되어 희망 없이 살던 센타로는 도쿠에 할머니를 만난 후,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는다. 도쿠에 할머니는 고통에서 얻은 소중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반쪽 존재와 같은 사람이다.<sup>70)</sup>

아르네-툼슨 유형 715 <반쪽짜리 닭(Half-Chick)>에서는 두 여인이 수탉을 갖고 있다가 둘로 반쪽씩 나누었다. 한 명은 그 반쪽을 먹고 한 명은 그냥 보관하였다. 남겨진 반쪽짜리 닭은 많은 돈을 발견하였는데 방앗간 주인이 그 돈을 가져가면서 밀 세 대(heads of wheat)만 놓고 갔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반쪽짜리 닭은 여우, 늑대, 개미 떼, 강을 이끌고 방앗간에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었고, 방앗간 주인은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었다. 그 돈으로 반쪽짜리 닭과 선택한 여인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sup>71)</sup> 반쪽 존재는 하찮아 보이지만,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고 본능적 요소와 협력하여 선택한 이에게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68) Schoffeleers M(1991) : Ibid, pp348-349.

69) Schoffeleers M(1991) : Ibid, pp351-352.

70) 두리안 스케가와/이수미 옮김(2015) : <양 : 단팔 인생 이야기>, 은행나무, 서울.

71) Ashliman DL(1987): Ibid, p715.

우리나라 속담 ‘반편이 명산 폐묘한다.’는 ‘사람됨이 반 병신이나 다름 없는 이가 도리어 잘난 체 하다가 명산을 모르고 묘를 폐한다 함이니 못난 것은 가만 있지 못하고 이러구 저러구 하여 일을 크게 그르친다는 말’의 뜻이고, ‘외눈박이가 두눈박이 나무란다’는 ‘큰 허물을 가진 자가 저보다 나은 이를 흉본다는 뜻’이다. 모자라고 허물을 가진 반쪽 존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설 때 곤경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리해 보면 창조 신화에서 인간이 반쪽 형상을 지녀야 하는지, 지금과 같은 대칭적 형상을 지녀야 하는지 갈등이 있었는데 반쪽 형상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반쪽 인간은 신과 닮은 특성인 불멸성을 가진다. 반면,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반쪽 인간이 신들에게 암전히 굴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징벌의 표상이다. 인간의 실수나 경솔함 등으로 반쪽 인간이 태어나 다른 세상이나 하늘에 가서 다른 반쪽을 찾아와야 하는 내용의 설화가 있고 때로 하늘 나라에서 돌아올 때 곡식을 훔쳐오거나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 온다. 정령, 데몬은 자주 반쪽 모습으로 그려지며, 상처를 받아 반쪽을 잃고 한쪽만 가지게 된 존재들도 있다. 반쪽짜리 닭이나 아프리카의 새 Dinema 등의 반쪽 존재는 홍수나 사냥에서 인간을 도와준다. 부족하거나 모자라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 밖에 없어 매우 소중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대상 민담의 외쪽이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노인에게 고기를 받아 고양이와 반씩 먹었을 때 태어나는 존재이다. 외쪽이는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한다. 형상으로는 부족하고 낮설어 보이지만, 양쪽을 다 지닌 인간보다 힘이 월등히 세고 재간도 있다. 외쪽이는 의식이 간절히 바라는 태도로 무의식을 대면하였을 때, 무의식에서 생성되어 의식된 심성이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진입한 새로운 정신적 내용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지만, 그 비천하고 낮설어 보이는 심성이 큰 힘을 발휘하고, 의식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게 된다.

4. 형들이 과거 보러 갈 때 따라간다. 형들은 외쪽이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해서, 외쪽이를 바위에 묶어 놓는다. 외쪽이는 바위를 뿔아 뜰에 가져다 놓는다. 그 다음에는 형들이 외쪽이를 나무에 묶어 놓지만 외쪽이는 나무를 뿔아서 뜰에 가져다 놓는다.

과거는 고려 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주로 양반가의 남자 자제들이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 치르던 시험이다. 과거는 입문식(initiation)의 역할을 해서, 과거를 치르고 통과해야 한 사람의 성인 남자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았다. 형들은 과거 보러 갈 때 외쪽이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한다.

집단적 의식의 일방성과 완고함은 자신들과 다른 것이 의식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그림자가 의식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투사하여 배척한다. 인종 차별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 계급 사회,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도 해당된다. 개인의 심리 차원에서도 의식의 태도와는 다른 것, 그림자가 등장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 의식에 통합하려고 하기보다 억압하여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무의식 속에 남겨 두고 의식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는 공격성이나 놀이 본능 같은 것이 있다. 한 교사는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는 남학생들에 대한 심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학교에 가기도 싫어지고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그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는 잘못된 것이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선생님에게 왜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는지 얘기를 나누었을 때, 자신보다 다른 사람부터 배려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상처 받을 수 있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 자신의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태도는 보기 싫고 억제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지나칠 경우 자신의 본성의 일부를 떼어놓고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무의식의 그림자로 남게 된다. 그것은 어느 순간 외부의 누군가에게 투사되어 없애 버려야 할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 이때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화하여 현실 생활에서 기능으로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적절하게 할 말을 하고 때로는 단호하고 엄한 태도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내담자는 청소년기부터 날라리 같고 센 친구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다. 성실하고 순종적인 자신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 놀았던 것처럼 보이는 동료가 더 인정받고 선배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싫기도 하면서 혼란스러워졌다. 이처럼 투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그림자가 의식화되고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형들은 과거 보러 갈 때 외쪽이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해서 바위에 묶어 두고 또 나무에 묶어 둔다. 그림자는 의식의 일방적 태도에 의해 의식화되지 못하고 무의식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 곳에서 나무와 바위로 표현된 영혼의 중심과 연결된다. 바위와 나무는 신화와 민담에 매우 자주 나오는 상징이고 연금술과 분석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상징이다. 나무와 바위는 자연이고, 자연은 무의식, 영혼, 본성이다. 자크 브로스는 “인간의 근본 원리들인 두 영혼의 결합은 ‘나무-바위’라는 쌍으로 표현된다.”<sup>72)</sup> “신화에서의 바위나 돌은 영험과 신격화된 인물이 태어나는 생명력을 상징한다.”<sup>73)</sup> 바나나 나무와 돌이 다투는 창조신화에서 돌이 주장하는 인류의 모습은 반쪽이고 죽지 않는다. 돌은 오랜 세월을 한결 같이 견디고 유지되는 것, 영원성을 상징한다. 하얗아 보이는 돌에서 금을 만들어 내는 연금술은 무의식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던 원형의 의미를 발견하고 의식으로 가져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 <몬스터 콜스>에서 소년 코너는 아주 오래되고 거대한 주목 나무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나무가 해 준 이야기에서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소년은 삶의 흐름에서 선하거나 악하기만 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픈 어머니가 죽기를 바랬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다. 나무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통과 의례가 된다. 나무는 대지에 뿌리 박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모두 보아왔으며, 아주 오래 전의 일도 기억하고 있다. 나무는 세계의 중심과 연결되어 대지의 어머니의 지혜를 소년에게 전달해 준다.<sup>74)</sup>

바위와 나무는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무거워서 쉽게 옮기기 어려운 것이다. 형들이 외쪽이를 바위와 나무에 묶은 것도 웬만한 힘으로는 뽑거나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통과 의례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격리되어 혼자 지내는 기간을 보낸다. 잠비아의 은템부족 사람들은 입회 의례시에 수련자를 숲 속에 오랫동안 격리시켜 둔다.<sup>75)</sup> 그러한 기간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외쪽이는 바위와 나무를 자신이 잔치할 때 떡돌과 떡매로 쓴다고 집마당에

72) Brosse J/주향은 역(2007) : 《나무의 신화》, 이학사, 서울. p21.

73)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p222.

74) Ness P, Dowd S/홍한별 옮김(2012) : 《몬스터 콜스》, 웅진주니어, 서울.

75) Victor T/박근원 옮김(2005) :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30.

가져다 놓는다. 마당의 풍경이 좀 더 자연과 비슷해졌을 것이다. 무의식의 심성이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의식의 환경이 조금씩 변화한다.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이고 키울 수 있는 의식의 심성과 태도가 형성된다. 외쪽이는 이미 자신의 잔치가 열릴 것임을 알고 있다. 무의식에서 새로 태어난 정신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무의식에서 출현한 정신의 어떤 부분은 의식에서 정신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역할을 하기 원하지만, 의식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정신이 무의식의 영역에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며 억압한다. 의식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새로운 정신은 무의식에서 영혼의 중심과 연결되어 에너지를 받고, 무의식의 산물을 의식에 옮겨 놓는다.

##### 5. 형들이 외쪽이를 칩으로 묶어서 호랑이 앞에 던져 놓는다. 호랑이와 칩 끊기 내기를 해서 호랑이 가족을 벗겨 온다.

대상 민담에서는 호랑이와 칩 끊기 내기를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민담에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민담 2에서는 사람들이 99명이 모여 있는데, 백 명이 모여야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 반편이가 자신까지 백 명이 되니 같이 넘어가자고 하자 너는 반편이라서 안된다고 한다. 반편은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고개를 올라가서 호랑이가 나오는 대로 발로 차서 죽였다. 민담 3에서는 반편이와 형들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와 아이들이 사람을 잡아 먹는 호랑이였다. 형들은 무서워하지만 반편이는 노친네로 변신한 호랑이와 호랑이 아들 다섯 마리를 손으로 탁 튕겨서 죽인다. 민담 4에서는 호랑이굴에서 자다가 돌아오는 호랑이들의 입에 손을 넣어 창자를 꺼내어 죽인다. 민담 5에서는 콩으로 군대를 만들어 적군을 이기고 반쪽 장군이 된다. 민담 6에서는 증들이 배나무, 송곳이 되어 형들을 죽이려 할 때 외쪽이가 마부가 되어 형을 구한다. 민담 7은 바위를 집에 가져다 놓은 후 형들을 따라가서 과거(科擧)해서 잘 살았다고 끝난다. 민담 9에서는 늙은이로 변장한 호랑이가 사는 산장에서 굴을 파서 형들을 탈출시키고 자신은 무죄주먹을 쓰고 탈출한다. 민담 10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갔던 외쪽이가 팔죽 할머니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죽이고 가족을 벗겨 오고, 어머니를 죽이려는 호랑이도 죽인다.

호랑이는 우리 설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다.<sup>76)</sup> 호랑이가 등장하는 우리나라 설화를 살펴보면 <호랑이의 보은>에서는 호랑이가 목에 걸린 비녀를 빼준 젊은이에게 나무를 해다 주고, 처녀를 물어다 주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보은한다.<sup>77)</sup> <무당 호랑이>는 피리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쫓던 나무꾼을 놓친다.<sup>78)</sup> <나쁜 호랑이 벌주다>에서는 할머니가 기지를 발휘해 화로, 고춧가루, 비늘, 소똥을 이용하여 항상 무발을 망치는 호랑이를 잡아 바다에 버린다.<sup>79)</sup> <호랑이 퇴치> 혹은 <금강산 호랑이> 설화에서는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 돌아오지 않은 사냥꾼의 유복자가 힘을 키워 호랑이를 잡으러 떠난다. 유복자는 호랑이가 변신하여 나타난 중, 아름다운 여인, 젊은이를 차례로 죽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수천 년 살아온 백호의 뱃속에 삼켜진다. 호랑이의 뱃속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해골을 찾고 기절한 처녀를 구하여 호랑이 배를 열고 나와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집으로 돌아온다.<sup>80)</sup> 목 장수, 혹은 떡 장수인 어머니를 호랑이가 잡아먹고 어머니 행세를 하며 자식까지 잡아먹으려 하지만, 지략을 쓰거나 하늘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물리친 설화가 있고, 호랑이 가죽을 잘 벗겨서 부자가 된 남자에 대한 설화도 구전된다.

대상 민담에서 호랑이는 대적하여 퇴치해야 할 대상이지만 또한 부자로 만들어 주는 호랑이 가죽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다. 외쪽이가 바위와 나무를 집에 가져다 놓은 후에 호랑이와 대적하는 것이 흥미롭다. 집단적 의식의 세계와 격리되어 무의식의 산물들을 하나씩 의식에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호랑이와의 대결에 이르게 된다. 새로운 정신이 의식에 진입할 때는 그 내용과 에너지가 다시 무의식에 의해 삼켜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의식이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과 접했을 때 자아가 집단 정신과 동일시하여 정신적 균형을 상실할 수 있다. 용은 신화에서 어머니인 심연의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민족의 영웅이지만, 그가 영웅인 이유는 그가 괴물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집단 정신의 극복에서 참된 가치가 나온다.<sup>81)</sup>

76) 조희웅(1996) :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서울, p55.

77) 손진태, 최인학. (편). (2009) : 《조선설화집》 민속원, 서울, pp192-194.

78) 손진태, 최인학. (편). (2009) : 같은 책, p210.

79) 손진태, 최인학. (편). (2009) : 같은 책, pp227-228.

80) 손진태, 최인학. (편). (2009) : 같은 책, pp262-266.

81) Jung CG/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4) : 용 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 서울, p72.

대상 민담은 ‘행들이 작은 이를 칩으로 푹푹 묶어서 범 앞에 던져 주고 달아났다. 반면이 힘을 내서 칩을 끊고 일어서니 범들은 이 사람은 산신령인가 싶어서 잡아먹지 않고 내기하자고 했다. 반면은 범들에게 우리 모두 칩으로 몸을 묶어서 호랑이가 칩을 끊으면 자신을 잡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범들의 가족을 벗겨 가겠다고 했다. 범들을 칩을 끊지 못해서 반면이 범의 가족을 다 벗겨서 짊어지고 갔다’고 전한다.

칩은 콩과의 덩굴 나무로 이웃 나무나 바위에 기대어 감아 올라가면서 길이 10m 정도로 뻗어 나간다.<sup>82)</sup> 적응력이 매우 왕성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 어떤 나무라도 감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sup>83)</sup> 칩은 줄기가 길고 튼튼해 칩으로 만든 섬유 ‘청올치’는 새끼 대신 물건을 묶을 때도 이용했고, 칩덩굴은 삼태기, 광주리, 바구니 등을 만드는데 쓰였다.<sup>84)</sup> <창세가>에서 천지창조신인 미륵님은 옷을 지을 때 ‘이 산 저 산 뻗어가는 칩 껍질을 벗겨서’ 만들었다.<sup>85)</sup>

칩은 땅에서 나와 칭칭 감을 수 있는 것으로 집단적 무의식의 사로잡는 힘을 상징한다. 지하에서 왕성하게 뻗어 올라오는 칩덩굴에 묶여 있다는 것은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 원형의 세계에 사로잡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융은 “개성화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페르조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 상들의 암시적 강제력의 그릇된 굴레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다.<sup>86)</sup> 집단적 무의식을 마주할 때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구분해 대면하여 의식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호랑이 가족을 벗겨오는 것처럼 집단적 무의식에서 소중한 것을 얻어올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연금술의 원물질에서 라피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개인적인 것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동일시할 경우, 즉 신비적 참여가 일어날 때는 자아와 의식이 무의식에 사로잡히는 위험성이 생긴다. 이것이 칩에 푹푹 묶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호랑이에게 먹히

82) 솔피(2010) : <약초도감>, 넥서스BOOKS, 서울.

83)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 속의 우리 나무.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6652&cid=46690&categoryId=46690>.

84) 변현단(2010) :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약이 되는 잡초음식>, 들녘, 서울.

85) 신동훈(2014) : <살아있는 한국 신화>, 한겨레출판, 서울, p30.

86) Jung CG(2004) : 같은 책, p77.

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태적 무의식성에 머무르는 것이다. 무의식과 대면할 때는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산출된 내용을 동화시킬 수 있어야, 다시 말해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sup>87)</sup>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호랑이를 퇴치하고 호랑이 가죽을 가져오는 것이다.

대상 민담의 반쪽이는 침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데 반해, 유회에서 소개한 편자브 지방의 반쪽이 왕자는 줄을 마음대로 다루는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다. 엘리아데는 인도의 밧줄 마술-밧줄을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고, 제자는 밧줄을 타고 오르며, 스승은 칼을 던져 제자의 몸을 조각내 땅으로 떨어지게 한 후 다시 맞추는-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무, 밧줄, 산과 사다리 또는 다리와 같은 신화적 주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신과 인간 세계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하였다.<sup>88)</sup> 꿈에도 줄을 잡고 올라오는 내용 혹은 위태로운 철제 난간을 통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무의식에 있는 의식화되기 어려운 정신적 내용과 연결되는 움직임을 표현한다.

민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놓인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엘리아데는 “줄의 이미지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지만 미리 운명 지어진 종속되고 구속된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sup>89)</sup> 리비아 민담 〈반쪽 남자 이야기〉에서는 형들이 반쪽 인간에게 물을 떠오라 하고는 연결된 줄을 잘라버린다. 이로 인해 반쪽 인간은 형들과 분리되어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스티스 톰슨의 분류에서 줄의 모티프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줄로 된 다리(Rope bridge to otherworld) F151.1.5 ; 공범이 줄을 거의 둘로 절단하여 죄수가 그것을 끊고 도망간다(Confederate cuts rope almost in two so that prisoner breaks it and flees). K647 ; 지하 세계로 연결되는 줄(Rope to underworld). F96 ; 줄이 잘려서 희생자가 떨어진다(Rope cut and victim dropped). K963 ; 하늘 밧줄. 줄을 통해 천상의 세계와 연결(Sky-rope. Access to upper world)

87) Jung CG(2004) : 앞의 책, pp52-62.

88) Eliade M/최건원, 임왕준 역(2006):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문학동네, 파주, p221.

89) Eliade M(2006) : 같은 책, p236.

F51 등으로 나타난다.<sup>90)</sup>

줄을 잘 다루는 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 보인다. 끊어야 할 때 줄을 잘 끊는 것, 이어져야 할 대상에 잘 이어지는 것이 인격의 발달에 핵심적이다. 개인적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단절하고 거둬들이는 것, 모성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무의식적 요소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것,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신의 본성과 연결되는 것이 개성화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민담 2에서는 백 사람이 함께 넘어가야 호랑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반쪽이는 끼워 주지 않았다. 하지만 반쪽이는 혼자서 범의 귀를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용은 “인간은 집단의 의도에는 대단히 유용하고, 개성화에는 대단히 유해한 하나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모방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똑같이 하려고 해서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집단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서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으며, 집단에 보탬이 되지도 못한다.

민담 3에서는 하룻밤 목계 된 집의 할머니가 호랑이다. 할머니에게는 범 다섯 마리 아들이 있다. 대상 민담과 유희를 살펴보면 할머니와 호랑이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이부영(2011)은 “설화 ‘호랑이와 세 아이’에 나오는 ‘어머니’가 모성적 보호 본능의 상징적 표현이라면 ‘호랑이’는 그 무의식적 측면에 도사리고 있는 파괴적 경향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91)</sup>

외쪽이는 바위와 나무에 묶였다가 극복하고 형들을 따라가지만 형들은 다시 외쪽이를 호랑이 앞에 던져 놓는다. 집단적 의식에 의해 무의식의 영역에 머무르게 된 새로 등장한 심성은 힘차게 다시 의식으로 떠오르고 의식을 본성과 닮은꼴로 만드는데 기여하지만, 의식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린이’는 배경인 어머니와의 유대를 풀어버리고 혹은 고립되고, 때로는 어머니까지도 위협적인 상황에 말려들면서, 한편으로는 의식의 거부적인 태도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무의식의 진공의 공포에 위협받는다. 무의식은 자기가 낳은 모든 것을 다시 집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다.”<sup>92)</sup> 새로운 심성이 의식화되고자 할 때 처음 한두 번은 좋은 결과를 쉽게 얻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씩 어려운 과

90) Thomson S(1960) :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Vol 6.2*,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659.

91) 이부영(2011): 앞의 책, p130.

92) Jung CG(2002) : 앞의 책, p258.

제가 주어지면 좌절하고 때로 포기하게 된다. 이는 호랑이로 상징되는 집단적 무의식의 부정적 모성 원형의 작용에 의한다. 리비아 민담 〈반쪽 남자 이야기〉에서는 형제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 떠난 길에서 처음 만난 친절한 부부가 식인귀였고, 늙은 여인인 여자 식인귀가 반쪽 인간과 형제들을 죽이려 한다. 꿈에서도 무서운 괴물이나 범죄자가 나타나 꿈의 자아를 위협하고 자아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도망치거나 대적한다. 처음에는 괴물에게 잡히려는 순간에 잠을 깨기도 하지만 점차 꿈의 자아에게 힘과 용기가 생긴다. 꿈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서의 우울함, 자기 비하, 부정적 사고가 변화한다. “영웅의 주된 행위는 어둠의 괴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라고 기다렸던 의식의 무의식에 대한 승리다.”<sup>93)</sup> 물론 여기서 무의식에 대한 승리라는 것은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무의식에서 태어난 심성이 무의식으로 다시 삼켜지지 않고, 의식의 영역으로 와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6. 숙소 주인과의 장기 내기에서 이겨 주인의 딸을 데려오기로 한다. 외쪽이는 다음날 노끈, 북, 벼룩, 빈대를 가지고 가서 지키고 있던 주인집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처녀를 보쌌해 온다.**

호랑이 가족을 가지고 돌아온 외쪽이는 그전의 무시당하고 핍박 받던 외쪽이가 아닌 듯하다. 외쪽이가 획득해 온 것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뺏으려고 한다. 영웅이 시련을 극복하고 얻어 온 소중한 것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폰 프란츠가 해석한 루마니아 민담 〈고양이〉에서도 황제가 막내 아들과 결혼한 고양이 여인에게 반해 그녀를 강탈하려고 한다. 폰 프란츠는 늙은 황제가 다른 영역에서 온 새로운 삶을 통합하거나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식의 낯은 원칙이라고 하였다.<sup>94)</sup>

외쪽이가 머물게 된 숙소의 주인은 반편이가 호랑이 가족을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장기 내기를 해서 자신이 지면 자신의 딸을 줄 테니 반편이가 지면 가족을 다 달라고 했다. 민담 1에서는 숙소 주인이 먼저 딸을 걸고 내기를 제안하는데 유화에는 부자나 숙소 주인이 내기를 제안하거나 외쪽이가 먼저 혼사를 제안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민담 2와 6에서는 외쪽이가 옆집 부잣집 혹은 장자집에 혼사를 제안하고 민담 3과 4에서는 각각 숙소 주인과 우물가에

93) Jung CG(2002) : 앞의 책, p256.

94) Von Franz ML(1999) : Ibid, pp15-21.

서 만난 처녀 아버지가 내기를 제안한다. 민담 2와 6에서 외족이가 먼저 혼사를 제안할 때 어머니는 “너 같은 반편한테 딸을 주간?” 하면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 현실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은밀하게 독립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머니가 앞길을 가로막을 때 자식이 주저앉는 것은 무의식의 모성 콤플렉스가 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담 6의 외족이는 “외족이는 장가도 못 가는 법이야.”고 당당하게 말한다.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가 작용하여 새로운 태도와 시도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발을 내딛어야 한다. 자신의 모성 콤플렉스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외족이는 호랑이와 칩 끊기 내기를 하고 숙소 주인과 장기 내기를 한다.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루덴스’라는 용어를 제안한 요한 하위징아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놀이 문화를 분석하여 문화가 지닌 놀이의 특징에 대해 탐색하였는데, 놀이는 경기(아곤) 즉 내기와 동질성을 지니며, “그리스의 심포지엄에서는 노래 부르기, 수수께끼 풀기, 잠 깨어 있기, 술 마시기 경기가 벌어졌다.”고 하였다.<sup>95)</sup> 인디언 부족 추장의 결혼식에서 손님 그룹은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데 그 싸움이란 장인이 신부를 내어주는 의례를 가리킨다. 요한 하위징아는 신부를 얻기 위한 경기의 사례도 다수 소개하였다. 전승에 의하면 오디세우스는 달리기 경주에 의하여 아내 페넬로페를 얻었다고 한다. 〈마하바라타〉와 〈니벨룽겐의 노래〉에도 아내를 얻기 위한 힘겨루기와 경기가 언급되어 있다. 베트남의 축제와 에다 전설에서는 신부를 얻기 위해 질문을 받고 지식과 재치를 평가받아야 했다.<sup>96)</sup>

게임과 내기는 놀이가 형식화된 것으로 고태적인 의례와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주론이 겨루기의 구조에 내재화되어 있다. 우연에 의한 게임은 신성 의례로부터 유래했다고 여겨지며, 운명의 신화적인 힘을 부여한다.<sup>97)</sup> 하위징아는 “인간이 하는 놀이의 가장 높은 형태는 언제나 축제와 의례의 영역, 즉 신성의 영역에 위치해왔다.”고 하였다.<sup>98)</sup> 내기는 놀이의 형식으로 문화에 나타나는 원형상으로, 힘과 재간을 갖고 신의 선택을 받은 승리자는 집단의 구성원

95) Huizinga J/이종인 역(2010) :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고양, p152.

96) Huizinga J (2010) : 같은 책, pp168-170.

97)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2010) : Ibid, p436.

98) Huizinga J(2010) : 같은 책, p44.

이 인정하는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된다.

호랑이 가족을 탐내 외족이에게 장기 내기를 제안한 숙소 주인은 장기에서 세 번을 다 지고, 아무 날 딸을 데려가라고 낱짜를 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주인은 딸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세워 지키게 하는데, 외족이는 이것을 미리 알고 다음날 간다. 민담 2, 3, 4, 6에서는 첫째 날에 이어 둘째 날도 가지 않고 셋째 날 간다. 새로운 의식의 태도로 외부의 대상을 대할 때 서둘러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거나 모든 것을 점령하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적을 살피고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지키는 사람들은 잠이 들어 외족이를 막지 못한다. 깨어 있는 것은 정신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식성의 상징이다.

처녀를 데리러 갈 때 외족이는 노끈, 북, 벼룩, 빈대를 가지고 간다. 노끈으로 지붕에 있는 사람들의 상투를 서로 매어 놓고, 방아간에 있는 사람들의 상투를 방아돌에 매어 놓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북을 달아 매어 놓고, 처녀 있는 방에는 벼룩과 빈대를 뿌려 놓았다.

상투는 장가든 남자가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맨 것으로 전통 사회에서는 상투를 틀어야 어른 대접을 받았다. 상투적이라는 말은 늘 써서 버릇이 된 식상한 것을 뜻한다. 근대에 단발령이 내려진 후 상투를 내리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도록 강제하였을 때 사람들은 신체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사상을 들어 반대하였고, 현대까지도 전통과 유교사상을 중요시하는 유학자들은 상투를 유지하기도 하였다.<sup>99)</sup> 상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낡은 집단의식을 고수하는 태도의 상징이다. 외족이는 상투끼리 매어 놓거나 상투를 넉지돌(연자방아돌)에 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집단 의식의 태도가 힘을 못 쓰게 되는데, 방아돌에 매어 놓은 것이 흥미롭다. 방아는 돌이나 나무를 움푹 파서 만든 절구와 곡식을 찧거나 뺨는 공이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수의 풍요로움과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킨다. 점잖은 척 하는 상투 맨 남자들을 방아에 매어 골탕먹이는 행동은 페르조나를 상징하는 상투와 생산성과 창조성을 의미하는 방아를 연결시켜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99)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대백과.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855&cid=46671&categoryId=46671>.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북을 달아 매어 놓아 외쪽이가 처녀를 데려올 때도 북을 치면서 보고만 있어야 했다. 북은 민속 음악, 불교 음악, 무속 음악, 궁중 음악, 군대 음악에서 쓰였다. 북은 악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로 원초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 북이 뚝뚝 울리면 가슴이 쿵쿵 울리면서 몸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정과 용기, 기대와 소망, 흥분을 경험하게 된다. 무속에서 북은 제사나 주술용으로 사용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북소리는 의식의 상태를 바꾸어 망야 상태에 이르게 한다. 시베리아 샤먼에게 북은 신성한 도구이며 저승으로의 여행을 할 때 말, 순록, 배가 된다.<sup>100)</sup> 김태곤의 입무 사례에서 무당은 꿈에서 하얀 할아버지의 안내를 받고 땅을 파서 장구, 징을 포함한 신물을 획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101)</sup>

대상 민담에서는 북을 가지고 가고, 민담 3에서는 장구, 민담 9에서는 장구와 팽과리를 가지고 간다. 민담 2, 4, 6에서는 피리를 갖고 간다. 북, 장구, 팽과리는 농악에서 주로 쓰이는 악기이며, 태평소, 나발 등의 관악기도 쓰인다. 민속 놀이에는 대부분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타악기를 울리는 풍장 음악이 곁들여졌고, 이 풍장 소리에 사람들은 저절로 신명이 나서 제각기 즉흥적인 춤을 추었다고 한다.<sup>102)</sup> 농악은 마을굿, 풍물굿과도 관련이 깊다.<sup>103)</sup> 외쪽이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무기가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음악과 리듬이 의식의 완고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정신의 요소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유화에서 피리를 갖고 가는 경우에는 처녀 어머니나 지키고 있는 여자의 성기에 피리를 박아 놓아서 쫓아올 때 뿔릴리 소리가 나게 만든다. 매우 외설적이고 민망한 장면이며 민담 구전 상황에서는 탈춤을 볼 때처럼 호탕하게 웃고 위선을 비판하는 해학과 풍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외쪽이는 벼룩과 빈대를 들고 가서 처녀가 자는 방에 뿌려 놓아 처녀가 “똥가 묻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와 외쪽이가 처녀를 업고 달아날 수 있었다. 벼룩과 빈대는 사람과 동물에 기생하여 피를 빨아먹는 벌레다. ‘벼룩 불알만 하다’, ‘똥어야 벼룩이다’ 등의 속담에서 벼룩은 매우 작고 하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100)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2010) : Ibid, p674.

101) 이부영(2012) : 앞의 책.

102) 임석재, 이보형(1986) : 《풍물굿, 한국인의 놀이와 제의》, 평민사, 서울. p7.

103) 임석재, 이보형(1986) : 같은 책. pp110-112.

〈창세가〉에 의하면 하늘에서 금벌레 다섯과 은벌레 다섯이 떨어져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고 전한다.<sup>104)</sup> 벼룩과 빈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깨물어 아프게 하므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박멸하기도 쉽지 않다. 대상 민담에서 빈대와 벼룩은 촉각을 자극하여, 움직이게 하고, 잠을 자고 있는 공간에서 나오게 한다.

외쪽이는 트릭스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민담에서 트릭스터는 바보나 열간이, 무시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자로 묘사된다. 연금술의 메르쿠리우스에서도 재치 있는 농담, 악의적인 놀림, 모습을 바꾸는 능력, 이중적인 특성, 반수(半獸), 반신(半神), 모든 종류의 고문에 노출됨, 구원자 상과의 근접성 등과 같은 트릭스터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트릭스터는 못된 장난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어낸다.<sup>105)</sup>

무의식의 삼키려는 힘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신적 내용과 체험이 의식에 도달했을 때, 의식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무의식에서 얻어온 내용만 자신의 의도에 맞게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쪽이가 처녀를 데리고 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정신이 감정과 통합하여 온전한 합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완고한 집단적 의식의 허점을 공격하는 동시에 집단 의식에 새로움과 활기,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과정이다.

##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민담 〈외쪽이〉를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하였다. 외쪽이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민담으로 대상 민담은 평안북도에서 구전된 것이다. 유화의 목록과 화소들의 변이를 정리하였고, 외국 유화 중 리비아 민담 〈반쪽 남자 이야기〉와 인도 편자브 민담 〈반쪽이 왕자〉를 소개하였다.

폰 프란츠는 반쪽이가 온전한 몸이 되는 말레이지아 민담 〈반쪽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으로 온전한 몸이 되는 반쪽이는 일방성을 극복하여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에 이르는 자기(Self)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대상 민담은 온전한 몸

104) 신동훈(2014). 앞의 책.

105) Jung CG, Radin P(1956) :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Cycle",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pp195-211.

이 되지 않고 반쪽이인 모습 그대로 신부를 데려와 잘 사는 것으로 끝이 나므로 일방성을 상징하는 반쪽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처에게 비는 것으로 시작하는 제시부는 의식에서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고착 상태에서 의식이 자아를 넘어선 존재, 자기(Self)에게 묻고 바라는 겸허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자 하얀 영감이 와서 고기 세 마리를 준다. 노현자 상으로 나타난 무의식의 가이스트가 작용하여 새로운 정신을 낳을 수 있는 무의식의 소중한 정수와 생명력을 의식에 전달해준다. 고양이가 와서 반 마리를 먹어서 부인은 고기를 두 마리와 반 마리를 먹고 온전한 두 아들과 반쪽이를 낳는다. 고양이가 상징하는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의식성, 악한 것과 병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독립적이고 영리하며 본성과 가까운 특성이 새로이 태어난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노현자 상과 고양이가 같이 작용하여 외족이를 탄생시켰다.

외족이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원형상으로 불멸의 특성을 지니며, 신을 닮은 형상이다. 반쪽이는 나머지 반쪽이 하늘 나라에 있거나 아버지가 신인 경우처럼 이승을 초월한 존재 및 공간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한다. 반쪽이는 하늘 나라에서 범씨를 훔쳐오거나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오는 문화영웅이다. 많은 정령이 반쪽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 반쪽 형상이 된 경우도 있다. 반쪽 모습을 한 새는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해주는 존재이다. 무의식에서 새로이 생성된 정신은 의식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외족이처럼 못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전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의식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며 삶의 한계 상황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외족이는 잘 자라서 형들이 과거 보러 갈 때 따라가는데 형들은 싫어해서 바위에 묶어 놓는다. 외족이는 바위를 뽑아 뜰에 가져다 놓는다. 형들은 다시 나무에 묶어 놓지만 나무도 뽑아서 뜰에 가져다 놓는다. 일방적인 의식은 기존의 의식의 태도를 유지하려 하며, 새롭고 다른 정신이 의식화되고 통합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억압한다. 의식의 영역에서 격리되어 나무와 바위로 상징되는 영혼의 중심과 연결된 새로운 정신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무의식의 소중한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형들은 외족이를 칩으로 묶어서 호랑이 앞에 던져 놓고, 외족이는 호랑이와

침 끊기 내기를 해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 온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파괴적 성질에 사로잡힐 위험성에 노출된다. 침을 끊는 것처럼 집단 정신과의 동일시와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집단적 무의식에서 얻은 소중한 보물을 의식으로 갖고 와서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다.

날이 저물어 들어간 숙소의 주인이 호랑이 가죽을 탐내 장기 내기를 제안하는데 외쪽이가 이겨서 주인의 딸을 데리고 오기로 한다. 외쪽이는 노끈, 북, 벼룩, 빈대를 가지고 가서 주인집 사람들을 골탕먹이고 처녀를 보쌌해 온다. 무의식에서 얻은 소중한 보물을 집단 의식의 낡은 태도가 뺏어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신은 노끈, 북, 벼룩, 빈대와 같은 하찮아 보이는 것을 갖고 의식의 틈을 파고 들어 그 모순을 드러내고 의식의 관습적 태도를 한바탕 비웃는다. 그 과정에서 의식에 활기를 불어넣고 감각을 깨우며 움직이게 만든다. 결국 처녀가 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외쪽이는 처녀를 업어와 잘 살았다. 낡은 의식의 틀에 갇혀 있던 감정이 해방되어 새로운 정신과 만나 합쳐져서 창조적 가능성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

외쪽이는 의식의 관점에서 창피하고 하찮고 폄박 받는 존재였지만, 집단적 무의식의 소중한 것을 의식에 갖고 오며, 감정과 연결되어 통합되고 생성과 창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융은 “오늘날의 경험과 인식에서 나쁜 것으로 보이는 것 또는 적어도 의미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보다 높은 경험 단계와 인식 단계에서는 최상의 것의 원천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106)</sup>

대상 민담은 분석심리학적으로 무의식에서 태어난 새로운 정신적 내용이 의식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의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불완전하고 이상해보이는 무의식의 심성이 기존의 정신적 태도로는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삶을 창조적으로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도 못나거나 기형인 사람이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진료실에서 장애가 있거나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끼는 내담자들에게 조심스레 외쪽이 민담 얘기를 들려주었는데, 얘기를 들은 내담자 중 한 명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좋다. 다른 얘기에서도 영웅은 뭔가 일그러지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민담은 당대의 집단적 의식을 보상하는 집단적 무의식의 작용을 드러낸다.

106) Jung CG(2004) : 앞의 책, p160.

대상 민담은 무(武)보다는 문(文),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는 유교적 신분 사회였던 우리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보상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외족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상 혹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그전에 없던 것을 가져다 주는 문화 영웅이기도 한 정신적 내용으로 집단적 무의식에 존재하며 점차 드러날 심성이다.

## 참고문헌

- 김금자(2012): “<외족이 설화>의 공간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기호(2004): “반쪽이 설화의 심리적 전이구조와 의미”, 《인문연구》.
- 김나영(2006): “비틀어진 인물 형상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변신의 의미 확장 가능성-외족이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 김선자(2011): 《김선자의 이야기 중국신화(하)》, 웅진씽크빅, 서울.
- 김인규 : 국립중앙과학관 : 포유류×양서×파충류정보,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42091&cid=46677&categoryId=46677>
- 김환희(2013): “한국 <반쪽이> 설화의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에 관한 비교연구”, 《민족문화연구》, 58.
- \_\_\_\_\_ (2013): “전래동화가 옛이야기 전승에 미치는 영향 : <반쪽이> 이야기에 대한 통시적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 네이버 지식백과 : 생활 속의 우리 나무.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6652&cid=46690&categoryId=46690>.
- 노영근(2007):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반쪽이 유형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38.
- 두리안 스캐가와/이수미 옮김(2015): 《앙 : 단팔 인생 이야기》, 은행나무, 서울.
- 변현단(2010):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약이 되는 잡초음식》, 들녘, 서울.
- 손진태, 최인학 편(2009): 《조선설화집》, 민속원, 서울.
- 솔 피(2010): 《약초도감》, 빅서스BOOKS, 서울.
- 신동훈(2014): 《살아있는 한국 신화》, 한겨레출판, 서울.
- 신연우(2002): “<외족이 설화>와 <지하국대적퇴치 설화>에 보이는 자아의 자기실현 양상”, 《열상고전연구》, 15.
- 안인희(2007): 《북유럽신화1》, 웅진지식하우스, 서울.
- 이기문(편)(1980): 속담사전.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 C.G. 융의 인간심성론》 제3판, 일조각, 서울.
- 이부영(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파주.
- 이부영(2012)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파주.
- 임석재(1987) : 《임석재전집1》, 평민사, 서울, pp114-115.
- 임석재, 이보형(1986) : 《풍물굿, 한국인의 놀이와 제의》, 평민사, 서울.
- 정영림 편역(2011) : 《반쪽이 삼파파스》, 창비, 파주.
- 조준호(2013) : “반쪽이 전래동화에 나타난 설화의 의미 변용 연구”, 《한국문예창작학회》, 12(2).
- 조희웅(1996) :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서울, p222.
- 한국사전연구사(1998) : 《종교학대사전》 Retri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30530&cid=50766&categoryId=50794>
- Brosse J/주향은 역(2007) : 《나무의 신화》, 이학사, 서울.
- Calvino I/이현경 역(2014) : 《반쪽가리 자작》, 민음사, 서울.
- Cooper JC/이윤기 옮김(2001) : 《세계문화상징사전》 까치, 서울.
- Eliade M/최건원, 임왕준 역(2006) :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 문학동네, 파주.
- Huizinga J/이종인 역(2010) :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고양.
- Jensen A, Niggemeyer H/이혜정 역(2014) : 《하이누엘레 신화》, 뮤진트리, 서울.
- Jung CG/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 옮김(2001) : 융 기본저작집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 서울.
- \_\_\_\_\_ (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 서울.
- \_\_\_\_\_ (2004) : 융 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 서울.
- Ness P, Dowd S/홍한별 옮김(2012) : 《몬스터 콜스》, 웅진주니어, 서울.
- Platon/강철웅 옮김(2016) : 《향연》, 이제이북스, 서울.
- Victor T/박근원 옮김(2005) : 《의례의 과정》,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 Archive for Research in Archetypal Symbolism(2010) : *The Book of Symbols*, ed. by Rönnerberg A, Taschen, Köln.
- Ashliman DL(1987) : *A guide to folktales in the English language*, Greenwood Press, Connecticut.
- Frazer JG(2013) : *The Great Flood*, Jason Colavito, New York.
- Hambrecht P(2014) : *Malaiische Märchen aus Madagaskar und Insulinde*, 3. Aufl., Holzinger, Berlin.
- Hannah B(1992) : *The Cat, Dog and Horse Lectures*, Chiron Publications, Illinois.
- Jung CG(1956) : CW 5, *Symbols of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York.
- \_\_\_\_\_ (1969) : CW 11, “Psychotherapists or the Clergy”, *Psychology and Religion : West and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 Jung CG, Radin P(1956) :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Cycle”, *The Trickster*, Schocken Books, New York.
- Lang A(1966) : *The Violet Fairy Book*. Dover Publications, New York, pp345-355.
- Needham R(1980) : *Reconnaissance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 Rose C(1996) : *Spirits, Fairies, Leprechauns, and Goblins: An Encyclopedia*, Norton, New York.
- Schoffeleers M(1991) : “Twins and Unilateral Figures in Central and Southern Africa: Symmetry and Asymmetry in the Symbolization of the Sacred”. *Journal of Religion in Africa* 21.
- Steel FA and Temple RC(1884) : “Prince Half-a-son.” *Wide-Awake Stories : a Collection of Tales Told by Little Children, Between Sunset and Sunrise, in the Panjab and Kashmir*; MacMillan and Co., London, pp383-384.
- Thomson S(1960) :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Vol 6.1*,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Thomson S(1960) :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Vol 6.2*,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 Von Beit H(von Franz ML) (1981) : *Symbolik des Märchens*, 6. Aufl., Francke Verlag, Bern.
- Von Franz ML (1992) : *Psyche and Matter*, Shambhala, Boston.
- \_\_\_\_\_ (1996) :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 Shambhala, Boston & London.
- \_\_\_\_\_ (1999). *The Cat : A Tale of Feminine Redemption*, Inner City Books, Toronto.

표 1. 외쪽이 민담 유형 비교

민담	수태음식 제공자	수태음식 종류	니누어 먹은 대상	고난	힘센 대상과 겨루기	내가	처녀 집에 가지고 간 것
1. 외쪽이	허안 노인	고기	고양이	바위, 나무	호랑이	숙소 주인	노끈, 북, 버럭, 빈대
2. 외쪽이	중	무	이웃 여자	나무, 바위	호랑이	이웃 부잣집	빈대, 버럭, 피리, 자개들, 유황
3. 외쪽이	허안 노인	고기	남편	바위, 나무	호랑이	숙소 주인	장구, 빈대, 버럭, 유황, 자개들, 시루
4. 외쪽이	약방 의원	알약	없음	나무, 바위	호랑이	어떤 마을에서 만난 처녀 아버지	피리, 무쇠 투구, 유황, 자개들
5. 반쪽이	없음	오이	씩은 오이 도려냄		적군		
6. 외쪽이	꿈에 나타난 허안 마누라	꽃감	남편	나무, 땅에 묻음.	중들	앞집 장지(長者)집	시루, 술, 유황, 피리, 자개들
7. 반쪽이	노승	나무 열매	남편	바위 밑에 깔림	없음		
9. 반쪽 아이의 재주 중	중	참외	이웃집 늙은이	나무, 바위	호랑이	이참판	장구, 자개들, 팽과리
10. 외쪽이	중	오이	남편	나무, 바위	호랑이	부잣집 사람	버럭, 빈대, 성냥, 유황

Shim-Sŏng Yŏn-Gu 2017, 32 : 2

<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a Korean Folk Tale <The Half-boy>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Ji Youn Kim, M.D., Ph.D.\*

I tried to understand a folk tale “The half-boy” in terms of analytical psychology. In the story, a lady without children prayed to the Buddha. The white old man came and gave three fishes, but the cat ate half of it. So, she ate two and a half. She gave birth to two perfect sons. The third son had one arm, one leg, and one eye. They grew well. Brothers went to take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the half-boy followed. But two brothers did not like the half-boy coming along. So, brothers tied the half-boy to the rocks and trees, and he picked them up with force and gave them down to the yard of the house. And the half-boy followed his brothers again, and brothers tied him with kudzu and put him in front of the tiger. The half-boy won the tiger by betting with cutting kudzu. The half-boy stripped off the tiger’s skin. The host coveted the tiger skin and they played with janggi. The half-boy won the game and was permitted to take host’s daughter. The half-boy went with a string, a drum, a flea, and a bedbug. He teased host’s people with these. The half-boy brought a virgin and lived well.

“The Half-Boy” folktale is an old story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There are similar stories in India and Africa. Unilateral figures are universally distributed archetypal images. In numerous cultures gods and spirits are being portrayed as unilateral figures. In the creation mythology, half-figure beings have immortality. In Indonesian and African folk tales, the half-born boy goes to heaven and merges with its half and becomes perfect. Some of one-sided spirits are harmful to humans but some of one-sided birds, chickens, and spirits are helpful to people. Sometimes half being is a cultural hero who steals grain from heaven or gets some advice how to use bamboo. There are stories that half body becomes a whole body afterwards. But in this folktale and most of the similar

folktales, half-figure does not change and maintains half-figure to the end. And as a half-figure he does various great things and marries a virgin.

The half-boy symbolizes a psychic experience born in the unconscious. The unconscious contents may seem strange and weird at first and the collective consciousness does not want to accept them. But the unconscious exerts greater power and brings vitality and creativity to consciousness.

This folk tale seems to have compensated for the stubborn collective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which was a Confucian class society. It also allows people to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disabled people and recognize strengths and creativity of the handicapped.

**KEY WORDS** : The half-boy · Unilateral figure · Analytical psychology · Korean folk tale · Shadow.

---

*\*Good Mind Psychiatry Clinic, Diploma Candidate of C.G. Jung Institute of Korea, Korea*